

샌퍼난도 밸리지역 교회 그리스도의 한 지체 확인



샌퍼난도밸리교회 회장 이정현 목사가 3일 집회를 마치며 인사말을 전했다. ©지재일 기자

1,2세가 함께하는 The Valley ONE 성황리에

샌퍼난도 밸리지역 교회 연합 집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임을 확인하며 3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쳤다. 'The Valley One' 집회가 지난 10월 1일~3일까지 밸리 연합감리교회에서 개최, 17개 지역교회가 참여했다.

밸리지역 한인교회들은 '거룩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비전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요 성도임을 확인했으며, 이것은 1세대와 2세대를 아우르는 운동으로 밸리지역 부흥의 초석이 되었다.

집회의 모든 일정과 준비를 각 교회 평신도들이 담당해 아래로부터의 부흥운동이라는 점이 주목할 만하며, 특별히 이 기간 큰 은혜를 받은 2세들의 요청으로 이들을 위한 연합집회를 다양하게 만들어가기로 했다.

샌퍼난도밸리교회 회장 이정

현 목사(밸리서울교회)는 "각 교회 목사님들은 연합이라는 자리만 마련했을 뿐 모든 것을 교회 평신도들이 이끌어간 아주 의미 있는 성회였다"며 "이번 집회를 준비하고 진행하면서 서로 교회만 달랐을 뿐 그리스도 안의 한 지체요 형제 자매임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정현 목사는 "밸리지역이 하나님의 거룩한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교회 연합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된다"며 "이번 성회를 계기로 밸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성도들로 가득하고 온 전역에 성령의 바람을 불러일으킬 길 소망한다"고 전했다.

샌퍼난도밸리교회 부회장 김원락 목사(밸리제일장로교회)는 "2세들을 위한 영어집회에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뜨겁게 기도하며 울부짖는 등 큰

은혜의 광경을 보았다"며 "2세들이 먼저 자신들을 위한 연합집회의 자리를 요청해 올 정도"라고 말했다.

김원락 목사는 "앞으로 교회들이 뜻을 모아 2세들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기로 했다"며 "뜨거운 2세들을 보며 지역과 미국의 큰 희망도 함께 보았다"고 덧붙였다.

3일간의 성회는 매일저녁 뜨거운 찬양과 기도가 함께하는 예배로 진행됐으며, 밸리지역 한인 목사들을 위한 목회자 세미나도 개최했다.

동시에 2세들을 위한 영어집회가 진행됐다. 3일간 주강사로는 정명철 목사(서울도림교회)가 있으며, 영어권은 Stephen Chong 목사와, Samuel S. Yun 목사가 이끌었다.

정명철 목사는 마지막날 '충성하는 성도의 길(본문 마26:6-13

절)'이란 제목의 설교에서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 목사는 "예수님께 육함을 깨뜨려 향유를 부었던 마리아는 그가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하고 최고의 예배를 드렸다"며 "어떤 교회와 성도의 수준은 얼마나 목숨 걸고 귀한 예배를 드리느냐에 달렸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왜 목숨을 다한 귀한 예배를 드리게 되느냐"고 반문한 정명철 목사는 바로 "감사"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결국 깨닫지 못하면 감사할 수 없기 때문에 감사는 곧 깨달음"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밸리지역 교회들은 12월 성탄절연합음악예배를 위해 독창, 중창, 찬양단 등 다양한 종목으로 준비하고 있으며 연합과 부흥 운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박상미 기자)

환태평양 영화제 대상은 'Peace be with you'

미주 한인들의 기독교 영화 축제, 환태평양 영화제(PPFF: Pan Pacific Film Festival) 'Grand Prize'의 영예는 'Peace be with you(Director: Jonathan Park)'라는 작품에 돌아갔다. 대상을 수상한 조나단 박 감독은 뉴욕인투운누리 교회 영상팀으로 'Birthday Cake'이라는 작품도 출품했으며 'Best Short'상을 수상해 이중의 영예를 안았다.

그는 수상 소감에서 "작품의 주인공이면서 암이라는 병으로 고생한 친구 호은이에게 고맙다"며 "무엇보다 대상을 주시고 이 작품이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도록 대장암에 걸렸던 호은이를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고 말했다.

'Peace be with you'는 대장암에 걸린 젊은 청년 목사의 이야기로 그의 투병생활과 결국 믿음으로 극복해내는 과정을 담고 있다. 암에 걸렸지만 암이

라는 죽을병을 통해 그의 삶과 가족, 주변사람들의 삶까지 바뀌어 버린 하나님의 은혜가 밑바탕에 있는 작품이다.

2일(토) 개최된 제 3회 환태평양 영화제는 이 밖에도 'Special Mention'상에 Friends, 'Church Media Award'에 ANC, 'Best Screenplay'에 Eyes of Lamb, 'Best Missionary'에 The Heart of Africa, 'Best Documentary'에 Judson's Eyes 등이 수상했다. 수상작들은 DVD로 제작되어 전 세계 미디어 및 영상 선교 도구로 활용될 예정이다.

시상은 영화제를 후원하고 있는 예수마음교회 이승종 목사, 아름다운교회 고승희 목사, 동서선교연구개발원 박기호 교수, 파사데나장로교회 성현경 목사, 코너스톤교회 이종용 목사, 뉴욕 시라큐스 한인교회 지용주 목사 등이 했다.

(박상미 기자)



환태평양 2010년 영화제 수상자들과 영화제 임원들과 단체 사진 촬영. ©지재일 기자

나라종합정비 & 바디
Nara Auto Body & Repair 사고차량 전문 바디샵
T. 323-734-4881 / (24hr) 213.247.6657
1201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 Insurance & Rent car, 사고처리

- Smog Check
- Brake Service
- Tune-Ups
- Computer Diagnostic
- 전기계통
- 30/60/90K Service
- A/C Service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삼성통운
SAMSUNG EXPRESS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무료전화 877-580-2424, 323-582-2424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www.easy2424.com

로즈힐 2010 캠페인 공경과 나눔을 실천합니다

노인 신분증 덕에 자식인 제가 더 마음이 놓여요!

로즈힐과 파바(PAVA)가 함께하는 **무료 노인신분증 제작**
노인분들의 안전을 위해 무료로 노인 신분증을 만들어 드립니다.

▶기간: 2010년 10월 4일(월)~10월 15일(금)
▶시간: 오전 11시~오후 5시까지
▶방법: 접수처에 오셔서 신청자의 생년월일, 거주지 주소, 긴급시 연락처와 주치의 등을 제시하시면 됩니다.(신청인의 사진 1매 지참)
▶신청장소:
• LA / 코리아타운 플라자 (928 S. Western Ave, 2층)
• OC / 한남체인 (5301 Beach Bl., Buena Park)
▶신청문의: 213-385-3303
▶후원: PAVA는 저미 한인 자원 봉사자들로 환경 및 공익을 위한 봉사단체입니다.

ROSE HILLS Memorial Park & Mortuaries
Rose Hills Mortuary Whittier #FD970

크리스천이라면 누구나 보냄 받은 '선교사'

예배시간 성도들은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전 OO선교사라고 합니다"라고 인사한다. 학교에 가는 아이에게 "선교사님 오늘도 공부 열심히 하세요"라고 말한다. 출근하는 남편에게는 "선교사님 오늘도 잘 다녀오세요"라고 인사한다.

학교와 가정과 일터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요 향기이다. 크리스천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선교사'란 말이다. 또한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런 도전과 열정으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전주안대교회 회전 담임이자 바울선교회 대표 이동휘 목사는 지난 1일~3일 오렌지카운티한국교회(담임 남성수 목사)에서 열린 부흥회에서 모든 성도들이 '선교사'로 다시 출발할 것을 강조했다.

이동휘 목사는 "성령이 임하시면 권세와 능력을 받는다(행1:8)"

며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우리들은 모두 보냄을 받은 자들로서 세계에 복음을 전할 선교사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총 8가지 선교사의 사명을 말한 이동휘 목사는 "우리가 자의로 하려면 단 한 가지

이동휘 목사 선교사 마인드 가질 것 강조

선교사도 할 수 없지만 오직 성령에 의지하면 8가지 모두의 선교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8가지 선교사의 사명 첫 번째는 '해외 선교사'이다. 이동휘 목사는 교육수준이 높고 기술이 뛰어난 우리 민족은 복음을 직접 전하는 일 외에도 자신의 직업과 기술을 활용한 전문인 선교사로 활동할 수 있다고 했다.

두 번째는 '부모 선교사'이다. 이 목사는 "하나님도 독생자 아들이 예수에 이 땅에 보내셨고 그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살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됐다"며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이 아름답게 사용하시고 존귀하게 만드실 것"이라고 말했다.

세 번째는 '기도 선교사'. 한해 발생하는 순교자 숫자가 16만 명에 달하는 때에 편안한 예배당에서 마음껏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우리는 목숨 걸고 예수를 믿는 전 세계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네 번째는 '물질 선교사'이다. 이동휘 목사는 "무슬림들은 모스크 건립을 몇 개 했는지 자랑이며 덕담"이라며 "생일이며 결혼기념일 등 각종 기념일을 위해 쓸 돈이 전 세계 교회 세우는 일에 사용된다면 그보다 값진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피땀 흘



3일간 부흥회를 인도한 이동휘 목사와 사모가 오렌지카운티한국교회 남성수 목사 및 교역자들과 기념촬영을 했다. © 박상미 기자

려 번 돈이 정말 알뜰하게 사용되는 일이라고 했다.

다섯 번째는 '직장 선교사'이다. 이동휘 목사 "주일용, 예배용 교인이 아니라 일터에서 믿지 않는 동료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며 "나 자신이 선교사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복음을 전할 기회는 분명히 생긴다"고 말했다.

여섯 번째는 '가족 선교사'다.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셨기 때문이다.

일곱 번째는 '문화 선교사'이다. 그는 특별히 "문화 선교사라

는 마음으로 인터넷에 무차별적으로 접속하라"면서 "공중의 권세 잡는 자 마귀가 아니라 오늘날의 공중인 사이버 세계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주게 하자"고 권면했다.

마지막 여덟 번째는 '길거리 선교사'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모든 일에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선교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

이동휘 목사는 "인생의 목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목적"이라면서 우리를 보내신 목적을 잊지 말 것을 당부했다.

한편, 창립 32주년 기념으로 3

일간의 부흥회를 개최한 오렌지카운티한국교회는 지난 3일(주일) 임직감사예배를 드렸다. 오후 4시 본교회당에서 드려진 예배에서 장로 6명(남일우, 박모세, 양해종, 이철호, 최의석, 허철진), 안수집사 8명(김성석, 김영진, 김응원, 김창재, 박광원, 이상범, 장용호, 조규만), 권사 12명(김문희, 김현숙, 남희경, 박영숙, 엄현옥, 이기재, 이정연, 장동근, 장수자, 진미정, 최만실, 홍형숙) 등의 임직자들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충성할 것을 기록하게 선포했다.

(박상미 기자)

남가주교협 1만5천 달러 장학사업

'작은 교회 살리기' 30명 목회자 자녀 대상 500불씩 전달



작은교회 교역자 자녀들 장학금 마련을 위해 한식당 다호갈비에서 5일 식당을 진행했던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지용덕 목사, 이하 교협)는 지난 2일 장학금 수여식을 LA한인회관에서 개최했다.

교협은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3일까지 5일 식당을 통해 마련된 13,000불과 회장 지용덕 목사(미주양곡교회), 부회장 민중기 목사(충현선교회), 방동섭 목사(미주성산교회), 남가주 교협 장학위원장 손수웅 장로가 각각 500불씩

2,000불을 기부해, 총 15,000불로 30명의 교역자 자녀들에게 각각 500불씩 장학금을 전달했다.

수여식에서 교역자 자녀들에게 메시지를 전한 지용덕 목사는 "목회자 자녀로서의 영적 부담감이 크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비전을 볼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자리임을 깨닫기 바란다"며 "항상 하나님의 자녀로서 긍지와 자신감을 갖고 힘차게 살라"고 권면했다. 장학금을 수여받은 바스타사랑교회 담임 김성선 목사

는 "3년간 개척교회 목회를 하며 어려운 가운데 남가주 교협에서 자녀를 위한 장학금을 지원해주셔서 감사하다"며 "군사도시인 바스토 지역 군인 가족들을 영적으로 훈련해 아프가니스탄 등 해외 선교지에서 영향력 있는 주님의 제자를 기르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가주 교협은 작은교회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9월 27일 목회자 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했다.

(지재일 기자)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해민, 이원상, 박기호, 방지각, 김중연,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조요한 편집국장 : 이재일 광고국장 : 이인규

지사망 : LA, NY, SAN FRANCISCO, WASHINGTON DC, CHICAGO, ATLANTA, SEATTLE

대표전화 : (213) 739-0403 / 팩스번호 : (213) 739-0408

주소 : 3600 Wilshire Blvd., #1030 Los Angeles, CA 90010

강력한 이민 변호사 강력한 형사법 변호사 강력한 이민·항소·추방 변호사

- ▶ 불법 체류자 문제 상담 환영
- ▶ 이민국이 부당하게 부결시킨분, 항소 하실분
- ▶ 추방위기에 처한분, 과거범죄기록있는분,
- ▶ 학생비자(F-1) 변경, E-2 시민권자의 배우자
- ▶ 종교비자, 종교이민 전문, 한국에서의 비자발급

매춘, 강도, 절도법, 경제범죄, 마약, 음주운전, 사기, 미성년범죄, 배우자 폭행, 범죄기록 조회 및 말소이혼

- 이민국의 부당한 결정으로 부결된 분
- 이민국에 항소중에 있는 분
(부당한 해고 이력 및 오버타임 미지급)
한국어 문의 (213)364-0779 티나킴

전화 213.364.0779 (24시간) 213.736.6696 / 3600 Wilshire Blvd., #2040, Los Angeles, CA 90010 Law Office of Claire H. Kim & Associate.

LEE & KENT LAW OFFICES OF LEE & KENT

www.leekent.com
www.us-lawoffice.com

지난 20년간 미주 한인 사회를 대표하는 종합법률그룹으로서 고객 한분 한분께 변함없는 믿음과 신뢰를 드리겠습니다.

미주한인사회 대표 종합법률그룹

상법 / 소송

- ▶ 민사 소송, 중재, 항소, 부동산
- ▶ 국제 소송, 기술 이전 / 상표법
- ▶ 회사 설립, 계약 위반

파산법

- ▶ 개인 파산, 기업 회생
- ▶ Chapter 7, 11, 13, 소송 및 차압
- ▶ 신용 문제 상담

이민법

- ▶ 각종 비이민비자 / 이민비자
- ▶ 취업비자&취업이민(EB1, EB2, EB3)
- ▶ 종교비자&종교이민, 가족이민
- ▶ 투자비자(E2), 투자이민(EB5)

대표변호사 이문규

- LEE&KENT 법률그룹 대표변호사
- 미국 투자법 및 투자이민법 전문변호사
- Univ. of Minnesota 법대 (J.D)대학원 졸업(1983년)
- Univ. of Missouri 경영학 및 회계학 석사(1989년)
- 캘리포니아 재판변호사 협회원
- 연방법원 및 세법관할 정회원 변호사
- 미국이민법 변호사협회 정회원
- 미주리주 공인회계사(CPA) 협회회원
- Business Advisory Council(캘리포니아 담당)
- 미주 상공인 총연합회 고문 변호사
- 국제 Law Firm Couderc Brothers 근무
- 국제거래/회사법/이민법/세법 외 수천 건 해결

이문규 법률그룹
LAW OFFICES OF LEE & KENT

대표전화 213-380-2828
IRVINE 949-442-8370

LA Office
915 Wilshire Blvd, #2050
Los Angeles, CA 90017
213-380-2828

IRVINE Office
8 Corporate Park #300
Irvine, CA 92606
949-442-8370

SEOUL Office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77-25 큰길타워 1904호
822-510-5200

소중한사람들, 식량난 겪는 북한 어린이 지원

11월중 밀가루, 콩, 설탕 1만불 모금 후 방북

소중한사람들이 오는 11월 심각한 수해로 식량난을 겪고 있는 어린이들을 돕기 위해 북한을 방문한다.

북한은 지난 8월 7일부터 12일에 걸쳐 평양 460mm를 비롯해 황북, 평남, 강원지역에 평균 200~300mm의 비가 내렸다. 대동강 상류인 평남 양덕 등에 500mm 이상 집중호우가 내려 심각한 식량난을 겪고 있다.

4일 JJ그랜드호텔에서 기자회견

권은 마련한 거리선교회 대표 김수철 목사는 "매일 흡리스트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소중한사람들은 2008년부터 북한 사역을 시작했다"며 "2008년 3월과 6월 북한에 고아원과 탁아소를 방문해 담요와 식량을 전달하고 농촌에 방막(비닐) 3톤을 지원한 바 있다"고 말했다. "2009년에는 북한 고아원과 탁아소 어린이들에게 겨울용 점퍼를 보냈으며 올해 11월에는 평양지역에 있는 빵 공장에 필요한 설탕, 밀가루, 콩 1만불을 10월 중 모금해 11월에 북한을 직접 방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소중한사람들은 중국과 미얀마에도

고아원을 세워 운영 중이며, 멕시코 엔세나다에 크리스천스쿨을 개교해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인디오 노동자 자녀들을 교육하고 있다. 지난 2월에서 8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아이티를 방문해 고아들을 돌보았으며, 10월 30일에는 평신도 선교사 2명을 파송할 예정이다.

소중한사람들 북한 주민 돕기 지원금을 보낼 이들은 323-810-0691로 전화하면 된다.

후원금 보낼 주소: Precious People P.O Box 57479 Los Angeles, CA 90057

(지재일 기자)



(왼쪽부터)소중한사람들 김민희 이사장, 이구연 사무총장, 김수철 목사, 최대영 이사장, 김귀덕 이사장.

▶ 강나운 권사, 허진용 집사 "달란트가 복음을 전하는 도구"



극의 두 주인공 허진용 집사(좌)와 강나운 권사(우) ©박상미 기자

실버연극 '하늘꽃(연출 조재현)'이 오는 10월 10일 남가주광영교회(담임 정우성 목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공연을 이어간다. 소망소사이어티가 기획하고 제작한 하늘꽃 연극은 연출자와 스텝 주인공 두 명 고작 네 명이 만들어내는 연극이지만, 이들의 하모니는 '하늘꽃'이라는 이야기를 타고 관객들의 마음속에 감동의 물결을 일으킬 것이다. 무엇보다

허: 채신사 할아버지 역을 맡았어요. 젊었을 때 가정은 뒷전으로 여기고 살았던 사람인데 교통사고로 가족을 잃게 된 후 어느날 우연히 박달녀 할머니를 보고 첫 눈에 반해 죽자고 따라다니죠. 다시 할아버지가 되지만 할머니로부터 정말 귀한 선물을 받게 돼요.

-박달녀 할머니와 채신사 할아버지의 로맨스네요?

강: 요즘 혼자 계신 분들이 일

강: 크리스천 드라마잖아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신 달란트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라는 마음으로 헌신을 다해 연습하고 있어요. 이것은 또 하나님이 주신 작품이자 하나님께 드리는 작품이거든요.

허: 전도라는게 실천하지 않으면 허상이잖아요.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바로 선교사가 아닐까요? 일종의 선교 사역이라고 생각해요.

-연극을 통해 기대하는 바도 분명할 것 같군요.

강: 연극을 보고 돌아가는 분들의 마음속에 작지만 아주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가 남아지길 바

라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마다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많지 않잖아요. 교회들이 '하늘꽃' 연극을 잘 활용했다면 좋겠어요.

허: 실버연극이라고 해서 노인들만 볼 일은 아니죠. 누구나 다 나이가 들고 죽게 되는 것이 이치니까요. 남녀노소 누구나 할 것 없이 와서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더 하고 싶은 말씀은?

강·허: 누구나 와서 보세요. 친구들의 손을 잡고 온다면 더 좋겠지요! (웃음)

공연 문의: 562-977-4580(소망소사이어티), 714-931-5498(조재현)

(박상미 기자)

배우 선교사들이 '하늘꽃' 연기해요

다 연극 속에 있는 천국의 메시지와, 연극에 임하는 두 배우의 남다른 각오는 더욱 그럴만하다.

극의 여주인공을 맡은 강나운 권사(남가주사랑의교회)와 남자주인공을 맡은 허진용 집사(디사이플교회)는 자신들의 달란트로 예수를 전하는, 그래서 자신들은 선교사라고 생각하며 연극에 임한다고 했다.

-권사님과 집사님이 맡은 역할에 대해 소개해 주세요.

강: 극의 여주인공인 박달녀를 연기하게 됐어요. 박달녀 할머니는 신앙이 있으면서 혼자 살고 있고, 그러다 재혼을 하게 되지만 먼저 하늘나라로 떠나게 돼요. 할아버지에게 '예수 잘 믿어서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라는 유언장을 남긴채...

마나 많아요. 외로움 때문에 노인 자살률도 높잖아요. 인생을 마무리하는 시기에 친구같은 동반자로 서로 챙겨주면서 건강에도 좋을 것 같아요.

허: 그런데 흔히 말하는 황혼의 로맨스만 다룬다면 더 큰 의미가 없죠. 많은 교회들에서 젊은 사람들을 전도하는 일에만 적극적이잖아요. 그러나 정작 급한 분들이 노인들이예요. 인생의 마무리를 해야 할 시기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너무 끔찍한 일이잖아요. 연극 속에는 남은 인생을 되짚어 보고 천국에 대한 희망과 소망을 갖게 하는 복음이 담겨 있어요.

-중요한 메시지네요. 그렇다면 연극에 임하는 자세가 달라질 것 같은데요?

ORT 대학에서

연방 및 주정부 지원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1. 기초영어 중, 고급 8개월 코스, 컴퓨터 학비전액 보조
2. 다양한 직업교육 보조금 지급 프로그램
3. 아카운팅 대학 졸업장, 자격증 /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대학 졸업장, 자격증
4. 약사 보조직 / 의사 보조직 / 컴퓨터 그래픽 & 데스크탑 퍼블리싱
5. 유학생 1-20 발행 (소셜번호, 워킹퍼미트 도와 드림)
6. 졸업후 직업 추천 해드림 (유대계 ORT대학)

※영주권자이상, 저소득층 유자격자 < 상담필수예약 >

대표전화 (323)556-5386
Cell, (213)434-8128

버스표
전액 보조

6435 Wilshire Bl, LA, CA 90048 (5층) (Wilshire+La Jolla, 버스 20번)

라브레마 커뮤니티 교회

창립 부흥 성회

강사 : **곽 선 희 목사**
(소망교회 원로)

2010년 10월 15~17일(금~주일)
금 토 / 아침 5:30 . 저녁 7:30
주일 // 아침 8:30 . 아침 11:00

강진용 담임목사

1069 S. La Brea Ave. LA, CA 90019
TEL. 323-930-1088 www.labreachurch.org

장애와 비장애를 넘어 모두가 '이웃'

마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한빛 예술단, 첫 LA 공연 성황리

뛰어난 음악적 역량을 갖춘 시각장애인으로 구성된 전문 연주단 '한빛 예술단'이 미국 상륙 첫 공연을 성황리에 마쳤다.

지난 30일 LA 월서크리스천교회(담임 엄규서 목사)에서 열린 공연에서 한빛예술단은 음악을 통해 장애와 비장애를 넘어 모두가 이웃과 가족으로 더불어 살아가고자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파했다.

이날 공연에서는 사명, 내게 강 같은 평화, I Will follow him 등 은혜로운 곡을 연주했다. 장시간 비행으로 인해 코피를 흘리기도 했다는 보컬 이아름 양은 육체적인 피로에도 불구하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를 은혜롭게 불러 청중의 심금을 울리

기도 했다. 특별출연에는 소리엘 지명현 전도사가 '하나님의 은혜'와 '야곱의 축복'을 찬양했으며, 좋은 이웃 장애인 난타팀도 출연했다.

이날 공연을 관람한 양모씨(28)는 "비장애인 장애인은 겉으로 보기에 차이가 있지만 주님의 주신 재능은 동등하고, 주님이 주시는 사랑 또한 평등하게 부여된다는 것을 공연을 통해 새삼 느끼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빛예술단은 시각장애인들에게 자신감 부여와 장애 극복의지를 고취시키고, 음악적 재능을 발굴 육성하여 음악을 통한 직업 창출 및 자립 능력을 배양시켜줄 목적으로 설립됐다.

(지재일 기자)



시각장애인으로 구성된 전문 연주 합창단 '한빛 예술단'이 30일 월서크리스천교회에서 미주 첫 공연을 성황리에 마쳤다.

이민 가정 문제와 가정 사역의 필요

월드미션대학교는 교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 가정 세미나를 개최한다. 월드미션대학교 가정상담자 과정에서 주최하는 이번 세미나는 돌봄과 상담 사역의 전문적 훈련을 받기 원하는 사역자와 사모, 상담 훈

련을 통해 교회에서 섬기기 원하는 평신도 리더, 자신의 내면과 가족 구성에 대한 교육으로 성장을 경험하기 원하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한다.

세미나는 이민 가정의 문제와 가정 사역, 월드미션대 가정상담 사역자 과정 소개 및 질의응답으로 진행된다. 일시: 10월 18일(월) 오후7시 / 장소: 월드미션대학교 채플(500 Shatto Place #600, LA, CA 90020) / 문의: 213-388-1000

(지재일 기자)

레이저비전월드, 10월 16일 음향 영상 클리닉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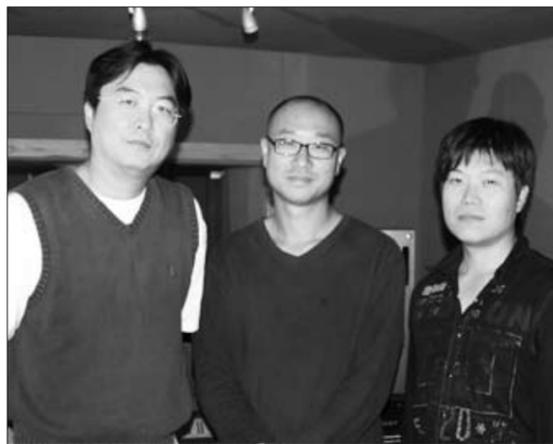
교회음향 발전위한 섬김이, '레이저비전월드'

교회음향, 영상, 조명 전문 레이저비전월드(laservisionworld.com, 대표 양철승)는 오는 10월 16일(토) 오전 9시부터 오후6시까지 예배와 교회 행사를 위해 필요한 음향·영상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1일 속성과정 클리닉을 실시한다. 이번 행사를 주최하는 레이저비전월드 김영덕 부장은 "이번 클리닉에서 교회 홈페이지와 인터넷으로 음향과 영상을 최고의 화질과 음질로 올리는 방법, 디지털 음향과 HD 영상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클리닉의 등록비는 \$100(음향·영상·조명 종합 핸드북 및 실기료 포함)이며 등록 및 문의는 323-730-5050으로 연락하면 된다. 아래는 음향·영상 클리닉에 대한 레이저비전월드 김영덕 부장, 김재호 실장, 이보혁 팀장과의 인터뷰 내용.

-레이저비전월드 주최, 음향·영상 클리닉에 대해 소개해 달라.
음향·영상 클리닉 기획 의도는 강사에 의한 이론 강의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교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전달하기 위함이다. 이론 강의는 약30분이며, 그 이후에는 참석자들에게 필요한 실습 위주로 강의할 예정이다.

-지난 클리닉 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 소개.
교회에서 전문 엔지니어들이 해도 방송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예를 들어 무선 마이크를 사용했는데 마이크 사용자가 전원 스위치를 켜지 않아서 소리가 나오지 않은 경우도, 불평은 방송실로 들어온다.



(왼쪽부터) 레이저비전월드 김재호 실장, 김영덕 부장, 이보혁 실장. ©지재일 기자

영상 프로젝트 수명이 다 돼서 고장난 경우에도 그런 불만들은 방송실로 올 수 밖에 없다. 그래서 교회 방송사역을 2년 이상 하는 이들이 거의 없을 정도다.

교회에서 방송하는 분들 중 대부분이 상처받은 이들이 많다. 지난 클리닉에 참석자들은 함께 교회 사정을 나누고, 배워서 더 나은 테크닉으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다. 음향·영상에 대한 문제나 고민을 나눌 곳이 없었는데, 레이저비전에 언제든지 전화하고, 가까이에서 도와주는 곳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참석자들 모두 든든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이번 클리닉에서 다루질 내용은 무엇인가.

이번 클리닉에서는 이론보다 실습 위주의 강의를 전해진다. 교회 음향·영상에 있어 실질적으로 가장 어려운 부분들을 짚어서 팁을 드리는 것이다. 교회 홈페이지와 인터넷으로 음향과 영상을 최고의 화질과 음질로 올리는 방법,

디지털 음향과 HD영상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또한 영상 프로젝트가 갑자기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 방법, 마이크 컨트롤하는 방법 등 실질적인 것들을 소개할 것이다.

-그동안 어떤 교회를 대상으로 음향 시공을 진행했나. 교회음향이라면 중대형교회가 대상이 될 것 같은데, 소형교회를 위한 교회음향 개선책을 소개해 달라.

베델한인교회의 경우 교회음향 시공 과정에서 건축도면까지는 분과 사전 회의 과정을 많이 거쳤다. 보통 교회들이 건축 설계를 먼저 한 후, 음향을 입히는 방식으로 하는데 베델한인교회의 경우, 건축 전부터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아주 긍정적인 사례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이러한 과정이 중요하다. 새로 건축을 하거나 이전하기 전 음향에 대한 계획을 담당자들이 충분히 얘기해 전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음향 업체와 충분히 회의하면 작

은 예산으로도 충분히 가능한데 교회 내에서도 음향에 대해 필요 사항과 중요사항들을 정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음향·영상 클리닉에서 교회의 필요 사항에 맞도록 담당자와 충분히 커뮤니케이션해서 가장 효과적인 미디어 시스템을 장착하도록 상담하는 것이 좋다.

-레이저비전월드에서 현재까지 수많은 음향시공을 했다. 남가주에서 가장 최적화된 음향·영상 시스템이 갖춰진 모델 교회는 어디라고 보는가.

베델한인교회, 동양선교교회 등을 꼽을 수 있다. 공통적으로 교회에서 음향과 영상을 담당하는 풀타임 사역자들을 세워 이들을 교육 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먼저 미디어 시스템이 갖춰진 후에는 엔지니어가 문제다.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시스템도 잘 되어있지만 사용하는 사람들이 지속적인 훈련교육이 필요하다.

-앞으로 레이저비전의 계획과 비전이 무엇인가.

현재 여러 방면으로 각 교회들을 섬기기 위한 계획을 갖고 있다. 미국 최대의 음향, 영상, 조명 트레이드 쇼인 NAMM 전시회(www.namm.org)에 참관 기회 제공, 무료 장비 수리점검, 합창단, 성가대 마이크 컨트롤 상담, 세미나 등의 계획을 갖고 있다.

교회 미디어 시스템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판단하고, 이를 공급하여 예배가 미디어를 통해 더욱 은혜롭게 드러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비전이다. 또한 레이저비전의 온라인 스토어(www.avigear.com), 남가주지역 문화 콘텐츠 공유를 위한 우리닷컴(www.wkori.com) 활성화, 미국 정부기관이나 교육 기관, 군대 등 사업 영역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가장 탁월한 기술을 끊임없이 개발시켜 교회에 봉사하는 기관이 되고 싶다. 레이저 비전은 교회와 부담없이 음향, 영상에 대해 대화하고 함께 발전시켜나기를 원한다.

(지재일 기자)



- ① 차량 구입하시면서 다운페이아가 없으세요?
- ② 무슨 차종을 선택할까 고민이세요?
- ③ 낮은 페이먼트 원하세요?
- ④ 크레딧이 나쁘세요?

지금 전화 하세요! 방법이 있습니다!



Puente Hills Hyundai

11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인이 고객님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용자, 차종 설정, 저렴한 페이먼트



FLEET MANAGER 찰리 정
☎ 213-276-8959
e-mail : usajyk@gmail.com



IPPCAN 2010

제4회 열방을 품는 기도성회

10.18 (월)~21(목) 주제: 모슬렘과 북한을 기도로 품자! Praying for Muslims & N.K.!

오후4시 저녁10시

등록: 1)일반 등록비 (\$80), 선교사 등록비 (\$60) 18일 오후 4시 등록, 식사 및 책자 제공

2)호텔은 개인 예약 Anaheim Park Hotel, Fullerton, CA www.anaheimparkhotel.com 714-992-1700

3)등록: 인터넷 등록 www.gimnet.net/reg2010IPPCAN (Paypal 결제), 우편 등록, 직접 등록: 은혜한인교회

contact: Joseph 목사 @ 714-767-8234



주 강사: 김용의 선교사, 김종필 선교사, 최바울 선교사
주제 강사 목사: 고승희, 김남수, 박기호, 박희민, 방지일, 윤재관, 이삭, 임현수, 정민용, 최경욱, 최복규, 한기홍, 호성기
선택 강사 선교사: 김성간, 김정환, 김지성, 김철용, 김홍덕, 김향철, 김평안, 박상배, 양태철, 엄경섭, 윤재관, 조재선, 최재영, Ken An, Sam Kim, 박운영 (로전 특파원)

장소: GMI (은혜한인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714-446-6200)
주최: KIMNET(세계선교동역네트워크), 주관: GMI (은혜한인교회).
공동주관교회: 남가주사랑교회, 또감사선교회, 베델한인교회, 아람다운교회, 아틀란타연합장로교회, 안디옥교회, 큰빛교회, 프라미스교회
공동주관단체: AMAC (남가주선교협의회), COME, Elijah Kim Ministry, GP USA, INTERCP (인터콕), SEED, Silkwave, SON, WMM (순회선교단)



◆ 글로벌선교태권도사관학교 협력, 교민들을 위한 의료서비스도

전주예수병원 '예수' 전하러 멕시코에



전주예수병원 권창영 병원장

그 옛날 이름도 생소하고 어디에 있는 나라인지도 모르는 조선에 오직 예수의 마음을 품고 눈물의 씨앗을 뿌린 선교사들이 있다. 그들은 교회와 학교 병원을 지어 예수의 이름을 드러냈고 더불어 조선의 근대화를 이끌어냈다. 조선인보다 조선을 더 사랑하는 그들의 희생의 터 위에 현재의 대한민

실습생, 중남미 선교사들의 치료비 지원건에 대한 논의를 했다.

중남미 선교를 목적으로 임상목회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전주예수병원은 1년간 한국 체류비와 교육을 지원하며, 멕시코 현지 수련이나 간호사들을 대상으로도 한국의 선진 의료기술을 실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현지에서 직접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위한 치료비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전주예수병원 의료선교사업은 중남미 선교를 위해 설립된 글로벌선교태권도사관학교(교장: 이길소 선교사, 이사장 박인근)의 협력으로 성사, 진행되고 있으며 본지가 후원하고 있다.

전주예수병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의료사업 및 전도사업을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됨을 목적으로 지난 1898년 잉골드 선교사에 의해 설

에서 조산사 훈련을 해 파견하기도 했다.

전주예수병원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미국의 한인사회를 위한 의료서비스도 시행할 계획이다. 병원 측은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해 비용의 문제로 병원을 찾기 두려워하는 한인들의 현실을 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실제 한국의 대표적인 병원들은 이 같은 미국의 의료현실을 겨냥, 의료와 관광을 겸한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다. 건강검진과 치료비, 왕복 비행기 티켓비용을 합쳐도 미국의 의료서비스를 받는 비용보다 적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각종 건강세미나와 무료검진 서비스로 한인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늘려 의료상품으로 연결시키고 있다. 전주예수병원은 의료를 통한 선교에 더욱 집중하는 한편 미국 교민들을 위한 의료서비스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전주예수병원은 현재 한국의 보건복지부에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으로 등록돼 있으며 특히 군산에 위치한 미공군과 진료협약(8MDG: 8th Medical Group)을 맺고 있다. 한편 의료선교 사업에 협력하고 있는 글로벌선교태권도사관학교는 현재 멕시코 Martial Arts 도장에서 태권도 수련을 하고 있으며 관련한 용구나 차량을 도네이션 받고 있다. 무엇보다 '선교 태권도'를 위해 함께 헌신할 동역자들을 모집 중이다.

◇ 예수병원 의료선교 및 글로벌선교태권도사관학교 문의 :213-245-8178, no1tkd@hotmail.com(글로벌선교태권도사관학교) :213-923-2359, ch-dailyla@gmail.com(기독일보) (박상미 기자)

의료서비스를 통한 선교사업 시작

군산에 위치한 미공군과 진료협약...

미국 교민들을 위한 의료서비스도 확대할 것

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국가로 부흥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맞이하고 있다. 이제 그 받은 사랑을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인종과 국가에 되돌려 줌으로써 보답하는 가운데 전주예수병원(원장 권창영)은 의료선교 사업으로 사랑의 빛을 갠다. 그곳은 한국의 70년대 생활수준과 의료 환경을 가진 멕시코다. 미국과 인접한 국가이기에 미국의 여러 선교자원을 동원한 접근이 용이하며, 중남미의 다른 국가들을 위한 교두보이다.

의료선교 사업을 위해 지난달 미국과 멕시코를 방문한 전주예수병원 김용기 사무국장은 미국 내 신학생들 중 임상목회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예수병원의 지원건과 멕시코 현지 수련이나 간호사들의 예수병원

립했다. 선교병원이라는 비전에 따라 지역사회 보건사업 및 최첨단 의료기술을 통한 의료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현재 10개국 20여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방글라데시 현지에 병원을 설립하고 의사를 파견했으며, 이밖에 낙후된 국가의 현지 의료진들에 대한 무상 실습과 교육을 제공해 오고 있다. 특별히 아프가니스탄의 경우 출산 중 사망하는 여성들이 70% 이상을 차지하는 점을 감안, 예수병원

의료선교 사업을 위해 지난달 미국과 멕시코를 방문한 전주예수병원 김용기 사무국장은 미국 내 신학생들 중 임상목회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예수병원의 지원건과 멕시코 현지 수련이나 간호사들의 예수병원

금 10k, 14k, 18k, 24k
최고가에 매입합니다

금돼지 213-908-0854
충주상업 3960 Wilshire Blvd. #406 (월서+월턴)

[새벽강단 14] 세계성경장로교회 새벽예배

축복은 '여호와와 율법을 지킬 때'

한국교회에만 유일하게 존재하는 새벽예배. 한국교회 부흥의 첫 번째 원동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개척교회부터 대형교회에 이르기까지 성도들의 신앙성숙과 더불어 부흥을 소망하는 곳에는 새벽예배의 열기가 더욱 뜨겁다. 이에 기독일보는 남가주 한인교회들의 새벽 설교를 집중 조명하여 새벽제단에서만 내리는 특별한 은혜를 나누고 개교회를 넘어 지역과 미주 전역의 부흥을 함께 소망하고자 한다.

세계성경장로교회(담임 강신권 목사)의 새벽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의 손에는 필기도구가 준비되어 있다.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모인 세계성경장로교회의 새벽예배에서 강신권 목사는 다윗이 솔로몬에게 했던 유언을 본문으로 "여호와와 율법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고 말한다. 무엇보다 "인생에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알 때 오늘을 사는 방법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본문〉 열왕기상 2:1~4
죽음이 임박하면 정적해 집니다. 오늘의 본문은 다윗 왕이 죽게 되었을 때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지요. 인간은 부족하고 허물이 많아도 하나님께서 한번 잡은 손은 절대 놓지 않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의 신복 우리야의 아내를 취해서 아들인 솔로몬을 낳았습니다. 신복의 아내를 취한 것도 잘못이지 그 신복을 전쟁터에게 죽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

나님은 다윗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을 부어 세우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성경은 내용 중심으로 크게 둘로 나눈다면 창세기 6장 4절 전과 후로 나뉩니다. 전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계약이라면 후반부터는 하나님이 역사 속으로 개입해 들어오십니다.

약점과 부족한 점을 아시고도 현재까지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만약 다윗이 그 전에 태어났다면 그의 죄로 인해 죽

었을까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남기는 유언입니다. 3절에 보면...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라고 합니다. 모세오경을 통해 전체 613개의 계명이 나옵니다. '하라'라는 계명이 248개, '하지마라'라는 계명이 365개입니다. 모세가 가나안땅에 들어가서 못하고 그 땅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율법을 지키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붙잡은 자는 절대 놓지 않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윗도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유언을 남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 이민자로 살면서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기고 떠나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3절 후반부에 모세의 율법을 잘 지키면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신앙이 삶이고 삶이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리하면 형통할 것이요 4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렇게 사는 자들에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시작 시간에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하며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박상미 기자)

강신권 목사

다시 본문 2절을 보십시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모두가 예외 없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 마지막을 안다면 오늘이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끝을 볼 줄 알고 시작하는 사람이 지혜롭습니다. 이제 내가 죽게 되었으니 아들에게 대장부가 되라고 합니다. 큰 인물, 거목이 되라고 합니다. 그 대장부는 어떻게 됩니까? 앞서 봤듯이,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신앙이 삶이고 삶이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리하면 형통할 것이요 4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렇게 사는 자들에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시작 시간에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하며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박상미 기자)

강신권 목사

데이비스 한인교회 담임목사 청빙

북가주 지역 캘리포니아 데이비스 대학(UC Davis)에 위치한 데이비스한인교회는 주님의 은혜로 1982년 대학원생으로 시작된 아름다운 교회로써 제자훈련과 세계선교를 꿈꾸며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교회입니다. 이러한 소명을 가지는 담임목사님을 청빙합니다.



자격 (Qualification):

- ▶ 복음주의적 정규신학대학원(M. Div or Th. M 목회학 석사 혹은 신학석사)이상을 졸업하고 캠퍼스와 이민 목회 사역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있으신 분
- ▶ 교회에서 인정된 교단에서 안수를 받고 5년 이상 목회경력이 있으신 분
- ▶ 영어권 사역의 중요성과 미국 문화에 익숙하고 이중언어로 설교가 가능하신 분

지원서류 (Application Package)

- ① 이력서(사진포함)
- ② 본인/가족소개서와 목회비전서(한/영)
- ③ 학위증명서와 안수증명서
- ④ 추천서 3부
- ⑤ 최근 섬기는 교회주보와 설교말씀 (영어와 한어 각각 1개씩)

제출처 : Davis Korean Church

ATTN: Sr. Pastor Search Committee(청빙위원회)
603 L St. Davis, CA 95616
Tel: (916) 717-0769 청빙위원
e-mail: blessedare@gmail.com

제출기한 (Due date): 2010년 10월 30일

남가주 최고의 정규 4년제 종합대학 월드 크리스찬 대학교 World Christian Theological University

BPPE 승인

SEVIS 승인

1-20 자체발행

ABHE 가입



예능대학, 선교대학, 신학대학
탐정대학, 경찰/경호대학, 언론정보대학
World Christian Theological University
[주정부, 연방정부, 교육국 승인]

방문, 상용비자를 학생비자로 변경

ESL, TOEFL

통신학부

수시입학

편입생 환영

Phone: [323]734.0227, [323] 734.4599, [213] 725.3007

Fax: [323] 734.0053, 2716 Ellendale Pl. LA CA 90007

“과테말라가 중남미 복음화 중심될 것 희망”

‘기도폭발, 전도폭발, 사랑폭발!’

세계성시화운동본부는 지난 1일(금) 오후6시30부터 9시까지 과테말라엘림교회(호르헤 노리에가 목사)에서 성시화 기도집회를 가졌다.

첫째날 약5천여명이 모인 가운데 열린 이번 성시화 기도 집회에서 호르헤 노리에가(Pastor Jorge Noriega)목사가 환영인사를 한 후 박희민 목사(미주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 김상돈 목사(과테말라 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 과테말라 라한인교회), 전용태 장로(세계성시화운동본부 총재)가 성시화대회 공동선언을 했다.

이어 엘림교회 찬양단의 찬양과 기도 후, 송정명 목사(LA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가 ‘과테말라 청년들을 위하여’, 최호자 권사(순복음강남교회)가 ‘과테말라 어머니들을 위하여’, 박근성 목사가 ‘과테말라 치안을 위하여’, 두상달 장로가 ‘교회와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하여’, 김철영 목사가 ‘부흥의 물결을 위하여’ 기도했다.

김상돈 목사는 “아브라함의 기도가 멈추는 순간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했다”며, 환경과 조건을 초월해 쉬지 말고 기도할 것을 권면했다.

그는 “우리의 기도가 멈추는 순간, 가정이 무너지며, 사회가 무너지며, 나라가 무너지게 된다”며 계

속해서 쉬지 말고 기도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 이어 호르헤 노리에가 목사가 현지 목회자와 한국 목회자 그리고 미주지역 목회자를 소개하고 환영하는 시간을 가졌다.

호르헤 노리에가 목사는 “한국 목회자들과 함께 기도하게 되어 감동이 밀려온다”며, “함께 이 땅을 거룩한 성시화 도시로 만들어가자”고 호소했다.

강단에 올라온 소강석 목사(세계성시화운동본부 상임회장, 새에덴교회)는 창세기 11장 1-9절과 계시록 18장 4-10절 말씀을 기초로 ‘바벨론의 도성을 무너뜨리는 성시화 운동’이란 제목의 말씀을 선포했다. 소 목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비전을 품자”며, “이 도시가 거룩하게 될 때 숲과 마약과 도박 등이 없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 사단의 도성이 아닌 하나님의 도성이 점점 강성해 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고 말했다.

끝으로 전용태 장로가 성시화 메시지를 선포한 후 정중환 목사의 축도로 모든 행사를 마쳤다.

한편 세계성시화운동본부는 이번 행사에 앞서 과테말라인교회에서 전용태 장로의 리더십 세미나와 최호자 권사의 중보기도 세미나를 개최해 뜨거운 호응을 얻기도 했다.

“과테말라가 중남미 복음화 중심될 것 희망”

지난 2일(토)에는 엘사다이교회



과테말라 국제성시화대회 중 기도집회 장면. ©미주성시화운동본부 제공

(자넷 데 까마르고 목사)에서 국제 성시화 기도회를 가졌다.

과테말라 호르헤 모랄레스 목사(기독교연합회장)의 대표기도를 시작으로 태극기, 과테말라국기, 과테말라성시화, 미주성시화운동본부,

이는 자들이 될 것을 강조했다.

이성우 목사(미주성시화운동본부 상임본부장), 김경수 장로(미주홀리클럽회장), 정중환 목사 외 현지 목회자들이 연합하여 ‘주의 종들과 교역자를 위하여’, ‘세계성도를

소 목사는 “바벨탑사건 이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도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과테말라를 거룩한 성시로 만들기 위해 세계성시화 축전을 하

회를 개최, 5일에는 산티아고 지역에서 성시화 집회를 5일간의 일정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번 과테말라 국제성시화대회 강사는 박희민 목사(미주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 송정명 목사(LA 성시화 운동 대표회장), 전용태 장로(세계성시화 운동 본부 총재), 소강석 목사(세계성시화운동본부 상임회장, 새에덴교회), 김흥규 목사(세계성시화 운동본부 상임회장, 인천내리교회), 두상달 장로(세계성시화 운동본부상임회장, 가정문화원이사장) 최호자 권사(세계성시화 운동본부인들레중보기도팀장), 김영숙 권사(가정문화원 원장), 이성우 목사(미주성시화운동본부 상임본부장), 김철영 목사(세계성시화 운동본부 사무총장), 정장식 장로(전 중앙공무원 교육원장)의 다수가 참여했다.

〈지재일 기자〉

세계성시화운동본부주최, 과테말라 영적대각성운동 전개

세계성시화운동본부 깃발 입장식이 진행됐다. 엘사다이 찬양팀의 찬양에 이어 박희민 목사(미주성시화운동본부 미주 대표회장)가 성시화 메시지를 전했다. 박 목사는 “과테말라를 통해 중남미 전 지역이 복음화 되길 희망한다”며,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축복의 사람들로 축복의 통로가 되자”고 말했다. 그는 “계속해서 섬기는 자가 진정한 지도자요, 주인이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새 역사를 만들며, 영향을 끼치는 자가 될 수 있다”며, 섬김의 본을 보

위하여, ‘청소년을 위하여’, ‘교회부흥을 위하여’ ‘거룩한 도시로 변화를 위하여’ 기도했다.

아울러 인천성시화운동본부 합창단 찬양과 과테말라인교회(김상돈 목사)의 한국 전통 부채춤이 계속됐다.

인천성시화운동본부 박소영 권사와 써지오 까마라고 목사가 성경봉독(계17:1~5, 계18:1~4)을 한 후 소강석 목사(새에덴교회)가 ‘바벨론의 도성을 무너뜨린 성시화 운동’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다.

고 있다”며 “아브라함이 쓰임 받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아 하나님의 임재가 날마다 함께 있기를 기원했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는 최남영 목사(멕시코 선교사)가 축도했다.

과테말라 국제성시화대회는 지난 3일 과테말라 최대 규모 교회인 프라페르니다드교회에서 성시화 기도 집회를 갖고 이날 오후에는 과테말라 대통령 궁 앞에서 전도집회를 가졌다. 4일에는 과테말라 지방 도시 알모론가 지역에서 성시화 집



과테말라 대통령 궁 앞에서 전도대행진에 참가한 사람들의 모습. ©미주성시화운동본부 제공



**월드비전 음악홍보대사,
노형건의 ‘한 생명 살리기 주일예배대행진’**



오페라 캘리포니아의 그 열정으로!
홈 스위트 홈의 사랑과 실천으로!
지구촌의 죽어가는 아동을 위해
희망의 노래를 부릅니다!

사랑과 나눔, 감동의 찬양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한생명 살리기 주일예배 순회 일정

- 9월 19일(주일) 오후 12:30 - 새소망교회 · 2017 West Olympic Blvd, L.A, CA 90006 · (213)422-6966
- 10월 3일(주일) 오전 10:30 - 리빙워드 연합교회 · 1494 California Cir, Milpitas CA 95035 · (408)934-3600
- 10월 10일(주일) 오전 10:30 - 발렌시아 새누리 교회 · 25133 Ave, Tibbitts #1 San Clarita, CA 91355 · (661)964-8205
- 11월 21일(주일) 오전 1:30 - 팜스프링스 한인감리교회 · 72700 Fred Waring Dr, Palm Desrt, CA 92260 · (760)636-2675
- 11월 28일(주일) 오전 10:30 - 기쁨의 교회 · 3912 Wilshire Blvd, LA, CA 90010 · (213)351-9975
- 12월 12일(주일) 오전 11:00 - 천성 장로교회 · 6910 Potrero Ave, El Cerrito, CA 94530 · (510) 215-9800
- 12월 12일(주일) 오후 1:00 - 시온 장로교회 · 980 Stannage Ave Albany CA 94706 · (510) 912-1955
- 2011년 7월17,18(토,주일) 오후 7:30 - 오페라 CA 선교오페라단 · 1046 S. Victoria Ave, L.A, CA 90019 · (323)936-2567

노형건

현 월드비전 음악홍보대사
현 사랑여성합창단 지휘자
현 AM1650 라디오서울 부국장 및
홈 스위트 홈 진행자
현 Opera California 선교오페라단 단장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M.M〉
〈미국 버지니아 주 Voice Competition First place〉
〈미국 버지니아 주 Everett college 종교음악과 교수 역임〉
〈국립 합창단, 김자경 오페라단 단원 역임〉
〈워싱턴 오페라 단원 역임〉
〈미주예총 1994년 올해의 예술인 상 수상〉
〈2005 World Cultural & Sports Foundation Multi-Cultural & Musical Award 수상〉

초청 문의전화
323-574-2747

www.rohyungkun.net

월드비전은 1960년에 한국 전쟁고아와 미망인을 돕기 위해 설립되어 현재 100여개 국에서 긴급구호 및 개발사업을 하고 있는 세계적인 비영리 기독교 구호 기관입니다. 월드비전은 전체 모금액 가운데 11.4%를 행정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을 해외개발사업에 투자하는 투명한 재정관리와 효과적인 사역으로 지구촌 이들을 돕고 있습니다.

평양과기대 내 김일성 우상화 시설, 국감서 지적

본지가 지난 5월 보도한 바 있는 평양과학기술대학 내 김일성 영생탑과 주체사상연구소 등 우상화 시설이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다. 기독교계 주도로 세워진 평양과기대는 지난해 9월 준공식을 마쳤으나 올 4월로 예정됐던 개교는 미뤄졌고, 향후 일정도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은 5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국정감사에서 “첫 남북협력 대학인 평양과학기술대 내에

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영생탑은 1994년 김일성 사망 이후 김정일의 지시로 북한 전역에 세워진 김일성 ‘우상화’ 조형물이다. 평양과기대 내 세워진 영생탑에는 세로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문구가 조각돼 있으며, 아랫 부분에는 김일성 화(花)가 조각돼 있다. 북한 주민들은 김일성 사망일(7월 8일)이나 생일(4월 15일)에 각 동리마다 세워진 영생



신신목목사와신임 교단장들이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대웅 기자

각 교단 총회 마무리, 신임 총회장들 한 자리에

각 장로교단 총회가 지난주로 대부분 마무리된 가운데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지도자협의회(대표회장 신신목 목사) 주최 신임 교단

회장, 백석 노문길 총회장, 예성 노희석 총회장, 기침 윤태준 총회장 등 신임 교단장들이 대거 참석하는 등 3백여명이 함께했다. ‘내게 직분

이 섬기는 교회와 총회는 주를 위 한 것이니 죽도록 충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특별기도 시간에는 ‘신임 교단장·총무의 사명을 위하여(김진호 기감 전 감독회장), ‘한국교회의 성장과 세계선교를 위하여(김동권 대한민국의사리기 국민운동본부 대표회장), ‘나라의

안정과 북한동포 해방을 위하여(김해철 루터대 총장) 등을 놓고 합심기도했다.

이후 격려사에서 지덕 목사(한

한국기독교지도자협의회 주최 감사예배

장·총무 취임감사예배가 4일 오전 서울 태평로 코리어나호텔 글로리아홀에서 개최됐다. 이날 감사예배에는 예장 합동 김삼봉·통합 김경서 총회장을 비롯, 고신 윤현주 총

을 맡기신 하나님(딤후 1:12)’을 제목으로 설교한 엄신형 대표회장(전 국가독교총연합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뜻이 있으셔서 직분을 맡기셨다”며 “여러분들

이 섬기는 교회와 총회는 주를 위 한 것이니 죽도록 충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특별기도 시간에는 ‘신임 교단장·총무의 사명을 위하여(김진호 기감 전 감독회장), ‘한국교회의 성장과 세계선교를 위하여(김동권 대한민국의사리기 국민운동본부 대표회장), ‘나라의

안정과 북한동포 해방을 위하여(김해철 루터대 총장) 등을 놓고 합심기도했다.

이후 격려사에서 지덕 목사(한

교사 재교육 등의 공약을 밝혔다.

하귀호 목사는 총신 및 총회목회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비블리컬 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인천기독교총연합회 총회장, 동인천노회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 총신총동창회 상임총무, 인천국제공항공협의회 부총재, (사)해피나우 상임이사, GMS 복지재단 이사, 기독교신문 이사 등으로 있다.

한편 이날 예배에는 교단 안팎의 지도자들이 참석해 축하를 전했다. 1부 예배에서 ‘불행의 씨앗’을 주제로 설교를 전한 증경총회장 길자연 목사는 “우리 교단의 모든 갈등을 극복하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며 “GMS의 선교 사역을 통해 우리 교단의 모든 갈등이 종식되는 축복의 날이 오길 바란다”고 했다.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총회시 선교보고 기회와 좌석을 확보하겠다고 공약을 내걸었다. 하 목사는 취임사를 전하던 중 “이 문제에 대해 총회장님의 대답을 들을 때까지 서 있겠다”고 말해, 김삼봉 총회장의 승락을 받아내기도 했다.

하 목사는 파송교회와 신임선교사, 본부직원이 통합된 선교연구기관을 만들어 활성화하고, 정책과 전략 수립을 위해 2011년 세계선교대회를 개최해 이를 통해 선교사 역점성 및 사역 통계, 홍보를 하겠다고 밝혔다.

또 미접촉·미전도 종족 선교를 위한 전자성결개발, 퇴직금 재정 투명성 제고, 선교사와 부모의 노후 준비, MK들을 위한 GMS국제학교 설립, 성례권 부여 등 208명의 여성 선교사들을 위한 배려, 미주 GMS 연락사무소 개소, 안식년 선

교사 재교육 등의 공약을 밝혔다.

하귀호 목사는 총신 및 총회목회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비블리컬 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인천기독교총연합회 총회장, 동인천노회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 총신총동창회 상임총무, 인천국제공항공협의회 부총재, (사)해피나우 상임이사, GMS 복지재단 이사, 기독교신문 이사 등으로 있다.

한편 이날 예배에는 교단 안팎의 지도자들이 참석해 축하를 전했다. 1부 예배에서 ‘불행의 씨앗’을 주제로 설교를 전한 증경총회장 길자연 목사는 “우리 교단의 모든 갈등을 극복하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며 “GMS의 선교 사역을 통해 우리 교단의 모든 갈등이 종식되는 축복의 날이 오길 바란다”고 했다.



강사: 마이크 에번스 (Mike Evans) 목사 강사: 린다 리버티 (Linda Liberty) 목사 강사: 김재원 목사

장 소 : Promise Christian University and College (윌리엄 케리 국제대학내에 위치) 1550 E. Elizabeth St, M13, Pasadena, CA 91104
 등록비 : 김재원 목사 (808)372-1485
 등록비 : 집에서 다니시는 분-일인당\$280(강의+교재포함) 윌리엄케리 기숙사에서 숙박하실 분-일인당\$350(강의+교재+숙박포함)

강의내용(치유전과정) : 신유, 내적치유, 축사, 영적전쟁과 은사 -현대 치유신학 체계적 정립, 비전과 사명부여, 성령세례와 기름부음, -은사개발(하나님의 음성듣기, 예언...등)

주 최 : 하와이 주하나치유학교 One in Christ Crusade Healing School/Healing Ministries 95-016 Kuahelani Ave., Mililani, HI 96789 E-mail: inchristhealing@gmail.com 김재원 목사 (808)372-1485

“전체사업비 2천억... 세습 인력 양성기관 전략 우려”

김일성 영생탑에 이어 ‘주체사상연구소’ 건립이 확인됐다”며 이에 대한 지원 중단

을 촉구했다.

데일리NK 보도에 따르면 윤상현 의원은 “원래 짓지 않기로 했는데 지었다. 누구 돈으로 지었느냐”며 “개교시 매년 600만 달러 운영 자금이 들고, 5~10억원 가량의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당초 이 사업의 투자규모는 400억원이지만 향후 운영자금 등을 감안할 때 전체 사업비는 2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2006년 노무현 정부 당시에는 남북협력기금에서 10억원이 지원됐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평양과기대가 북한의 3대 세습을 지탱하는 인력 양상으로 전략하는 것과, 북측이 과기대에 주체사상을 필수과목으로 넣으려 한다는 것, 한국이 북측에 전수해준 기술이 살상무기 생

태에서 현화하도록 강요받고 있다.

학교 설립을 주도한 동북아교육문화협력재단(공동이사장 박선화·김삼환 목사) 평양과기대 관계자는 본지 보도 당시 사견(私見)임을 전제로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북한 체제를 먼저 이해하는 일이 필요하다”며 “성공적이라고 평가받는 연변과기대 안에도 공산당원들이 다 들어와 있는데, 이러한 문제들을 흑백으로 가를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영생탑을) 세우지 않으면 북한에서는 학교 허가 자체가 되지 않는다”고도 전했다.

영생탑에 대한 기독교인들의 염려와 실망에 대해서는 “실망하셔야 하고, 현실을 아셔야 한다”며 “저희가 돈을 내서 학교를 지었다고 해서 모두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대웅 기자)



GMS 이사장 목사 “총회시 선교사들 권리 보장”

5일 이취임식 갖고 포부와 공약 밝혀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총회 세계선교회(GMS) 제7대 이사장 하귀호 목사(인천만민교회)가 취임 일성으로 선교사들의 권리 보호와 2020년 5,000명 선교사 파송을 위한 구체적 계획 수립 등을 강조했다.

5일 오전 대치동 총회회관에서 이취임식을 가진 하귀호 목사는 “본부 직원과 교단, 파송교회 및 노회 이사, 2천여 선교사들과 화합하고, 행정을 간소화해 24시간 섬기는 본부를 만들겠다”며 “교단 선교회의 특성을 살려 현장을 중심으로 하고 신학 정체성을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교단 헌법에 정기총회시 선교사들의 연권이



취임 전 기자회견에서 각오를 밝히고 있는 하귀호 목사. ©류재광 기자

보장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총회시 선교보고 기회와 좌석을 확보하겠다고 공약을 내걸었다. 하 목사는 취임사를 전하던 중 “이 문제에 대해 총회장님의 대답을 들을 때까지 서 있겠다”고 말해, 김삼봉 총회장의 승락을 받아내기도 했다.

하 목사는 파송교회와 신임선교사, 본부직원이 통합된 선교연구기관을 만들어 활성화하고, 정책과 전략 수립을 위해 2011년 세계선교대회를 개최해 이를 통해 선교사 역점성 및 사역 통계, 홍보를 하겠다고 밝혔다.

또 미접촉·미전도 종족 선교를 위한 전자성결개발, 퇴직금 재정 투명성 제고, 선교사와 부모의 노후 준비, MK들을 위한 GMS국제학교 설립, 성례권 부여 등 208명의 여성 선교사들을 위한 배려, 미주 GMS 연락사무소 개소, 안식년 선

교사 재교육 등의 공약을 밝혔다.

하귀호 목사는 총신 및 총회목회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비블리컬 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인천기독교총연합회 총회장, 동인천노회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 총신총동창회 상임총무, 인천국제공항공협의회 부총재, (사)해피나우 상임이사, GMS 복지재단 이사, 기독교신문 이사 등으로 있다.

한편 이날 예배에는 교단 안팎의 지도자들이 참석해 축하를 전했다. 1부 예배에서 ‘불행의 씨앗’을 주제로 설교를 전한 증경총회장 길자연 목사는 “우리 교단의 모든 갈등을 극복하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며 “GMS의 선교 사역을 통해 우리 교단의 모든 갈등이 종식되는 축복의 날이 오길 바란다”고 했다.

(류재광 기자)

주하나 치유학교 (One in Christ Crusade) Healing School / Healing Ministries

로스엔젤스 / 한인타운 특별 무료 성령 치유 세미나



데일 셰논(Dale Shannon)



김재원 목사

강사: 김재원 목사 (주하나치유학교) Dale Shannon (Fulfill Your Dream Ministry)

“당신도 치유 사역자가 될 수 있다!”

세미나 강의 내용:

- 오전 - 성령세례 / 기름부음 / 능력안수기도
- 오후 - 내적치유 /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꿈(예언사역)

날 짜: 2010년 10월 16일 (토)

시 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장 소: 남가주실로암교회 (923 S. Gramercy Dr. LA, CA 90019)

예 약 : 김재원 목사 (808)372-1485

(LA / 파사데나) www.inchristhealing.org

주하나치유학교 전과정 인텐시브코스

기간: 2010년 10월18일(월)-20일(수) 3일간
 시간: 오전9시-오후9시까지



강사: 마이크 에번스 (Mike Evans) 목사



강사: 린다 리버티 (Linda Liberty) 목사



강사: 김재원 목사

장 소: Promise Christian University and College (윌리엄 케리 국제대학내에 위치) 1550 E. Elizabeth St, M13, Pasadena, CA 91104

등록비: 김재원 목사 (808)372-1485
 등록비: 집에서 다니시는 분-일인당\$280(강의+교재포함) 윌리엄케리 기숙사에서 숙박하실 분-일인당\$350(강의+교재+숙박포함)

강의내용(치유전과정): 신유, 내적치유, 축사, 영적전쟁과 은사 -현대 치유신학 체계적 정립, 비전과 사명부여, 성령세례와 기름부음, -은사개발(하나님의 음성듣기, 예언...등)

주 최: 하와이 주하나치유학교 One in Christ Crusade Healing School/Healing Ministries 95-016 Kuahelani Ave., Mililani, HI 96789 E-mail: inchristhealing@gmail.com 김재원 목사 (808)372-1485

인터뷰

2세대 신앙, 타 아시아권이 한인교회 훨씬 앞서

이민교회 목회현장에서 뛰고 있는 목회자들을 만나 이민목회에 관한 다양한 창조적인 제안과 시도, 목회컨설팅 등을 통해 다른 이민 2세대를 통해 본 한국이민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모색해 본다. - 편집자 주



유기은 목사

한인이민 1세교회, 중요한 신앙의 유산 전수 놓쳐..

한인 2세대의 계속된 교회 이탈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한인 2세에 대한 신앙전수 측면에서 한인 이민 1세대교회와 이민 1세대 부모가 반성하고 고민해야 할 측면이 크다. 한인이민교회는 지금까지 한인 1세대의 하나님께 대한 간구와 열정으로 지켜져왔지만, 이에 비해 한인 2세는 대학교로 진학하면서 대다수가 교회를 떠나지 않으며 2세대역자로 지원되는 비율도 매우 낮다. 이런 가운데, 다른 이민 2세대를 통해 본 한

국이민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유기은 목사(주손길장로교회)로부터 들어보았다.

유기은牧사는 “지금까지 이민 1세대까지는 한인교회가 이민자 그룹 중에서 앞서 있었는지 모르지만, 향후 2세대에게서는 지금과 같은 순서가 바뀔 가능성이 크다”

고 말했다. 유 목사는 “향후 이민 2세대는 베트남권을 비롯한 다른 아시아권이 한인교회를 훨씬 앞서 있다.

특히, 베트남권 목회자 자녀들의 경우엔 모두 선교사나 목사로 아주 훌륭한 사역을 하고 있다. 미

왔던 부모를 생생하게 경험했다.”

한인 2세대역자 영성이 뒤따라가지 못한다는 점이 가장 심각한 문제

유기은 목사는 “그들은 이미 준비돼있는 매우 헌신돼있는 사역자들이다. 아버지가 체험한 신앙

사역자의 영성이 뒤따라가지 못하는데 있다. 2세대역자들이 교회 운영에 대한 자율성과 재정적인 안정만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성서적인 관점에서 본질적인 문제로 고민한다고 볼 수 없다. 적어도 교회가 선교를 어떻게 해야

터 리더십이나 존경심을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한인 2세교회는 아직도 혼자 힘으로 부딪치며 교회를 세우고 개혁부터 시작해 유지해갈 능력이 없다. 하나님께 매달리고 간구하는 힘이 아직 부족하다”며 “이런 수준으로 앞으로 한인교회를 이끌어간다면 한인이민교회는 장기적으로 50년 앞을 볼 때 희망이 없다. 1세에서 2세로 넘어가면서 점점 발전적으로 가지는 못할망정 점점 하락하는 추세가 된다면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유기은 목사)

유기은 목사는 현재 주손길장로교회를 담임목회를 맡고 있다.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대학원 졸업,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 목회학 졸업(M.Div), 필라델피아 템플유니버시티 신문방송학 박사학위(Ph.D.)를 받았다.

(임형진 기자)

유기은 목사 “신앙전수 측면에서 한인 1세 교회 반성해야”

국에서 이민 1세대와 2세대 가장 영적유산이 잘 전수된 민족을 꼽으라고 한다면 베트남 민족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베트남의 경우에 1세와 2세대 동시에 고난을 겪으면서 신앙의 전수가 자연스럽게 일어났다. 나라를 잃고 보트피플신세로서 배고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다.

자녀들은 하나님을 구해왔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 살아

올 자식이 거의 동일하게 공유하고 있다. 고난이 오히려 자녀들에게 강한 영성을 만들어냈다. 한국 이민교회는 이런 중요한 신앙의 유산을 놓친 것”이라고 말했다.

유 목사는 앞으로 한인 2세대역에서 가장 심각한 위기 역시 2세대역자의 영성에 있다고 지적한다.

“한인 1세교회가 2세 교회와 함께 할 준비가 안 된 측면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2세

하는지 의견충돌이 있다면 제대로 된 사역자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유기은 목사는 “사실 한인 1세 교회는 2세대에게 더 큰 영성을 요구하고 있다. 개혁교회부터 치열하게 하나님께 매달리며 쌓아올린 1세 교회 터 위에 다문화권으로도 영향력을 펼칠 한인 2세 목회자를 기대한다. 그런 기대에 못 미치는 면을 보지 못하고 2세 사역자들이 자꾸만 환경을 탓하려고만 하면, 결국 1세교회로부

6년.. 각고의 기다림통해 얻어진 예배당

산호세한인장로교회(박석현 목사)는 새로운 예배당 구입을 시작하지 6년 만에 결실을 맺었다. 실리콘밸리 서니베일에 위치한 자체 예배당을 구입해 현재 마무리 인테리어공사를 하고 있다. 내년도 부활절 전에 이 전할 예정이다. 새로 이전할 예배당 주소는

770 Lucerne Dr Sunnyvale, CA 94085이며, 고정 300석

에 127대 주차시설을 갖고 있다. 공청회등을 비롯해 교회건물사용허가가 이미 완료됐으며, 최종 마무리공사만 진행하면 된다.

산호세한인장로교회는 실리콘밸리지역에서 새로운 자체 예배당소를 얻기까지 적지않은 시간을 기다려왔다. 6년 전에 있던 아이들에게 더 필요하고 성도들이 오기 편한 중심적인 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해 일단 기존 예배당을 팔기로 작정했다.

그후 예배당을 파는데 2년이 걸렸고, 1년 동안 그 교회에서 머물면서 임시적으로 사용하고, 현재까지 2년 동안 임시 예배처소에서 예배를 드려왔다. 박석현 목사는 “그동안 자체 교회 예배당이 없이 교회를 옮기면서 지내왔지만 교인들이 지치

산호세한인장로교회, 마무리 공사중 내년도 부활절전 이전

지 않고 서로 잘 화합해 지내서 감사하다. 성도들이 예배당을 찾기까지 다름 없이 잘 참고 견디어오면서 오히려 단단해졌다”고 밝혔다.

이번 자체 예배당을 얻기까지 우여곡절도 많았다. 실리콘밸리 지역에 교회예배당을 얻기가 어려운 지역임을 체감했다. 올해 1월에 원래 거의 들어가기로 했던 예배당이 마지막 공청회에서 통과되지 않아 아쉬웠던 기간도 있었다. 하지만, 잠시

후 2월에 하나님께서 이번 예배당에 훨씬 더 좋은 조건의 예배당을 허락해주셨다.

이 와중에 산호세한인장로교회는 앞으로 예배당을 구입하는 다른 교회를 위해 도움을 주기도 했다. 박석현 목사는 “산타클라라에서 우리에게 종교시설이라고 해서 교회를 세울 수 없다고 했는데, 얼마 후 불과 몇 마일 안 떨어

진 지점에 규정보다 더 높은 이슬람 타워를 허락해줬다. 시 행정이 원칙 없이 진행되고 있었다. 앞으로는 다른 교회를 위해서라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교회존이 지정될 수 있도록 시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한, 산호세한인장로교회는 교회 시작 초부터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선교와 함께 구제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임형진 기자)

시애틀 형제 교회 40주년 시작 하며 도약다짐

시애틀 형제교회(담임 권준 목사)는 지난 9월 26일 교회 창립 39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며, 한 해 동안의 사역을 돌아보고 모든 성도가 형제교회의 비전을 재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교회는 39년을 마감하고 40년 역사를 시작하며, 한 영혼의 회복을 시작으로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가 되기를 한마음으로 염원했다.

온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예수 공동체를 이룬다’는 형제교회 사명 선언문을 한 목소리로 외쳤고 이를 위해 스가정이 세워지는 공동체 신신앙이 성숙되는 공동체 스성령이 역사하는 공동체 스신교에 동참하는 공동체를 이뤄갈 것을 다짐했다.

권준 목사는 설교에서 “형제교회는 사도행전 2장의 초대교회 공동체가 재현되는 교회를 지향한다”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행하고 가르치고 배우며, 자신의



물건을 팔아 서로를 사랑했던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 시대에 재현하자”고 독려했다.

그는 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힘을 아끼지 않고, 서로를 위해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문화 강좌와 양육 강좌, 가정사역, 청년부 단기선교, 아이티의료 선교 및 건축, 공휴사역, 여성사역, 회복사역, 중보사역, 강임마누엘 선교사 파송 등을 돌아보며 모든 일 가운데 동행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예수 공동체를 이룬다

위해 전심으로 기도했던 교회의 모습을 닮아 가자”면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겸손히 섬김 교회의 원형을 이 땅에 실현하는데 다함께 동참하자”고 권면했다.

성도들은 김영철 선교사 파송을 비롯해 감사저금통 장학금 전달, 실버대학, 문봉주 목사 말씀회, 이용규 선교사 말씀집회, 이동열 선교사 몽골 국제대학 파송, 멋진 삶 만들기 30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 외에도 ‘기독교 명문 학교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시작한 UCIC가 프리스쿨을 넘어 유치원 과정과 초등학교 1학년 과정을 허가 받은 것에 대해 기쁨과 감사를 표하며, 교회 비전에 다리가 놓인 것으로 평가했다. 또한 분당 건축 허가 역시 교회가 한 단계 도약하는데 귀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브라이언 기자)

내 부모 처럼 마음을 드리는 봉사자 모집

장애 우 사랑교회에서 양로병원 봉사를 10년동안 하다보니 할아버지, 할머니들께 치매에서 벗어나고, 매일 찬송가를 암송하시므로 할 일이 있다는 소망을 드리기 위한 찬양대회를 개최하게 되었기에 이 대회를 빛내게 하실 심사위원들(5명)과 봉사자 분들(15명)을 초청하오니, 연말연시의 바쁜신 시간들을 나누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찬양대회 장소와 시간

- 그랜드 팍 양로병원 친교실 : 2010년12월17일 오전 9시30분~11시
- 2312 West 8th, Street, LA., CA 90057-3955
- 중앙양로병원 친교실 : 2010년12월18일 오전10시~11시30분
- 676 S. Bonnie Brae St, LA., CA 90057

대회는 찬송가 204장을 심사곡으로 하며 상금도 주어집니다. 1등 1명에게는 상금 100불, 2등 2명에게 각각 50불, 3등 3명에게 각각 30불, 그리고 찬송가 모뎀을 다 암송한 분들에게는 10불씩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연락처 : 213-705-0404 / Fax: 213-351-0955
메일 : P.O.Box742017 Los Angeles, CA 90004

세금무료상담



확실히 줄여드립니다
절세의 노하우를 통해 여러분을
세금고민으로 부터 해방시켜 드립니다.

1. 세금보고 및 세무상담 유학생을 위한 세금보고
2. 국제/국내 비즈니스 컨설팅 투자이민 E-2
3. 세무감사 대행서비스
4. 온라인 상담 (www.chungycpa.com)
5. 공증

상담환영 : T (213)387-2004

주소 : 3540 Wilshire Bl. #407 이정운공인회계사&공증

남가주 지역 복음화에 앞장서는

교회 및 선교회 리스트

갈릴리선교회
 담임: 한현영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어린이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화-금) 오전 5:30
 youth 오전 11:00 토요일연합세례 오전 6:20
 2212 S. Western Av., LA., CA 90018
 T. (323) 735-6412 / www.gmcchurhc.com

감사한인교회
 담임: 김영길 목사
 1부예배 오전 7:45 금요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45 장애인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영어장년부 오전 10:00
 4부예배 오후 1:45 새벽기도회 매일 5:30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228-9540 / F. (714) 521-4636

구세군나성교회
 담임: 김옥균 사관
 주일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6:20
 수요일예배 & 성경공부 오후 6:00
 933 S Hoover St, Los Angeles, CA 90006
 T. (213) 480-0714

나성순복음교회
 담임: 진유철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영어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저녁 7:30
 1750 N. Edgmont St. LA.,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나성열린문교회
 담임: 박현성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4부예배 오후 12:30
 2부예배 오전 9:30 주일영어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3:30
 192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57
 T. (213) 413-1600 / www.laopendoor.org

나성한인감리교회
 담임: 남강식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Youth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20
 3부 EM 오후 1:45 수요일예배 오후 7:30
 4부 청년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433 S. Normandie Ave. LA, CA 90020
 T. (213) 365-6191 / F. (213) 365-6291

남가주광염교회
 담임: 정우성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성경공부 (화)오후7:30,
 (수) 오전10:30
 2부예배 오전 11:00 (수) 오전10:30
 금요저녁예배: 오후7: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5:30
 4009 Wilshire Bl. #100-B, LA, CA 90010
 T.(213)598-0191

남가주동신교회
 담임: 손병렬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10:00 4부(청년)예배 오후 1:30
 2121 E Wilshire Ave, Fullerton, CA 92831
 T. (714) 680-9556 / F. (714) 680-6418

남가주리디머교회
 담임: 김요섭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후 1:00
 2부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화-토) 오전 6:00
 성경공부 주일예배 오전 11:00
 1938 S. Western Ave., LA, CA 90018
 T. (213) 215-8523 / www.scrdm.org

남가주명성교회
 담임: 정해진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주일학교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화-토) 오전 5:30
 중고등, 유년부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111 S. Mariposa Ave., LA, CA 90004
 T. (213) 383-9182, F. (213) 251-9182

남가주빛내리교회
 담임: 박용덕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매일새벽예배: 오전5:30
 2부예배: 오전 11:30 Youth 예배: 오전10: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영어(EM)예배: 오후 2:30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90631
 T. (714) 401-9874 / starkoreanchurch.org

대양장로교회
 담임: 류당열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1325 12th Ave LA, CA90019
 T. (323) 731-9819 / C. (213) 440-0125

대흥장로교회
 담임: 권영국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주일청년예배 오후 1:00
 2부예배(영어) 오전 9:45 중/고 주일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년부 주일예배 오전 11:0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www.dkpc.org

들로스교회
 담임: 서보천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 오전 5:15(화-금)
 2부예배 오전 11:00 오전 6:00(토)
 주일찬양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전 10:30(목)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 www.douloschurch.com

드림교회
 담임: 이성현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11:00 오전 11:0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
 130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6
 T. (626) 793-0880 / F. (626) 793-6412

미주성산교회
 담임: 방동섭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EM 오전 10:30
 2부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 오전 5:30
 3부예배 오후 1:00
 1111 W. Sunset Blvd. LA CA90012
 T. (213)-975-1111 / F. (213)975-1357

미주양곡교회
 담임: 지용덕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매일) 오전 5:30
 주일찬양예배 오후 1:30
 519 Western Ave, LA, CA 90020
 T. (213) 380-9377, F. (213) 380-9378

베델한인교회
 담임: 손인식 목사
 1부예배: 오전 7:30 4부예배: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9:30 (청년예배)
 3부예배: 오전 11:30 새벽기도회: 화-금 새벽 5:30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삼성장로교회
 담임: 신원규 목사
 1부예배 오전 7:30 3부예배 오전 11:20
 2부예배 오전 9:40 4부예배 오후 12:50
 5600 Carboncanyon Rd, Brea, CA 92823
 T. (714) 524-2029 / F. (714) 524-8844

소중한사람들
 대표: 김수철 목사
 찬양-눔예배 매일 오전 7:00(다운타운 4기 Crocker St)
 1부가리예배 오전 7:00
 2부센터예배 오전 9:30
 1856 W 11th Place, LA, CA 90006
 T. (213) 385-4515 / F. (213) 385-5474

새생명오아시스교회
 담임: 김일형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EM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1:00
 3119 W. 6th St Los Angeles, CA 90020
 T. (213) 383-2939

새생명장로교회
 담임: 정철 목사
 1부EM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회(화-주) 오전 6:00
 2부EM예배 오전 9:45 수요일성경공부 오후 8:00
 23662 Birtcher Dr, Lake Forest, CA 92630
 T. (949) 458-9191 / F. (949) 459-9158

새창조교회
 담임: 최학량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 오전 5:3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찬양예배 오후 1:30
 23814 S. Vermont Ave. Harbor City LA, CA 90710
 T. (310) 325-0501 / F. (310) 325-4282

세계성경장로교회
 담임: 강신권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화-토) 오전 5:30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310) 793-2297, 2298(Fax)

세계소망교회
 담임: 오세훈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주일찬양 오후 1:30 새벽예배 오전 5:30
 824 W. Venice Blvd., Los Angeles, CA 90057
 T. (213) 745-9191

쉽있는교회
 담임: 이철기 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성경공부 오후 8:00
 새벽기도(토) 오전 6:00
 901 W Wilshire Ave, Fullerton, CA 92832
 T. (714) 293-1257

시온성증양교회
 담임: 박상규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새벽기도(화-금) 오전 5:30
 2부예배 오전 11:00 (토) 오전 6:00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995-2868 / F.(714)995-0169

아름다운교회
 담임: 고승희 목사
 1부예배 오전 10:00 3부EM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안디옥장로교회
 담임: 지윤성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영어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30 새벽예배 오전 5:30
 오후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 오후 8:00
 2720 Montrose Ave., Montrose, CA 91020
 T. (818) 249-2871 / F. (818) 249-0516

얼바인침례교회
 담임: 한중수 목사
 1부예배 오전 7:45 4부예배 오후 1:3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화-토) 오전 5:30
 3부예배 오전 11:45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 857-9425 / www.irvinechurch.com

영광의빛복음교회
 담임: 우대권 목사
 주일예배 오후 1:30분 목요일예배 오후 7:30분
 주일학교 오후 1:30분
 1200 W. Alvarez Ave. Orange CA 92868
 T.(213) 291-5901 / (714) 833-2568

영생장로교회
 담임: 김해성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30
 1829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T. (323) 732-7356 / C. (818) 993-3574

은혜한인교회
 담임: 한기홍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후 12:00
 2부예배 오전 10:00 4부예배 오후 2:30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인랜드교회
 담임: 최병수 목사
 1부예배 오전 7:30 3부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월-토) 오전 5:30
 110 N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임마누엘헬로십교회
 담임: 안창기 목사
 주일학교 오전 11:00 청년부 오후 1:15
 중고등부 오후 1:15 장년주일학교 오후 1:15
 14300 Leffingwell Rd. Whittier, CA 90504
 T. (562) 944-8082

에바다선교회
 담임: 이준호 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5:30 청년예배 오후 7:00
 (월-금) (1,3,5째주 토요일)
 2221 W. Olympic Bl,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9-2671

예수마을교회
 담임: 정인호 목사
 1부예배 오전 9:3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금요중보기도 오후 1:00
 615 shatto place, LA, CA90005
 T.(213)249-9191 / F.(213)739-0515

월서크리스천교회
 담임: 엄규서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11:30
 2부EM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 오전 6:0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634 S. Normandie Ave, Los Angeles, CA 90005
 T. (213) 382-5658

주님세운교회
 담임: 박성규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3부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10:0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7:20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주님의영광교회
 담임: 신승훈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후 12:40
 2부예배 오전 10: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주님찬양교회
 담임: 장준근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2511 3rd Street, Los Angeles, CA 90057
 T. (310) 940-1646 / F. (714) 397-2875

청운교회
 담임: 이명수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화-금)
 중고등부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4465 Melrose Ave., LA, CA 90029
 T. (323) 667-9920

축복교회
 담임: 김인경 목사
 1부예배 오전 9:30(영어) 청소년예배 (토)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30 리더십 트레이닝
 Cell Church (금) 오후 8:00 (토) 오전 10:30
 2080 La Puente Rd., Walnut, CA 91789
 T. (909) 598-7731 / F. (909) 594-5955

충현선교회
 담임: 민종기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4565 W. Colorado Blvd., LA, CA 90039
 T. (818) 549-9191

코너스톤교회
 담임: 이종용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화-토) 오전 5:30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LA,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파사데나장로교회
 담임: 성현경 목사
 영어예배 오전 10:00 새벽기도 (월-금) 오전 5:30
 스페인어예배 오전 10:00 (토) 오전 6:00
 한국어 오전 10시(월요일) 수요일예배 오후 7:45
 정오 12:30(분방) 금요찬양 오후 8:00
 58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1
 T. (626) 795-6252 / F. (626) 584-6544

함께하는교회
 담임: 최성철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월-금) 오전 5:30
 3부영어예배 오후 1:00 (토) 오전 6:00
 14515 Valley View Ave, Suite T. Santa Fe Springs, CA 90670
 T. (714) 236-0256

SL 임마누엘선교회
 담임: 백지영 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오후 3:00
 찬양예배(화-토) 오후 7:00
 SOLOMON UNIVERSITY 총장: 백지영 박사(Ph.D.)
 3921 Wilshire Blvd, #404-408 LA, CA 90010
 T. (213) 381-7755 / F. (213) 380-7755

◎ 유럽 문명사 끝나느냐, 이슬람화되느냐.. 기로에 선 유럽

조용한 이민자 무슬림 VS 순진했던 유럽

평균 출산율이 1.38%이라는 유럽연합. 그러나 전체 인구는 감소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 이유가 뭘까?

지난 4일~5일 프라미스교회(담임 김남수 목사)에서 열린 2010 이슬람선교세미나의 강사로 초청된 최바울 선교사(인터콥 대표)는 1960년대부터 유럽에 몰려들기 시작한 무슬림 이민자들의 높은 출산율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유럽에 무슬림 이민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은 150년 전이지만 2차 대전 이후 국가 재건을 위해 필요한 노동력을 조달하기 위해 1960년대 이민자를 대거 불러들였다. 그 이후 1980년대~90년대 무슬림 이민자들은 급성장해 현재 유럽 인구의 5%를 차지한다.

특별한 혜택이 없어도 한 가정

에서 기본적으로 5명~7명의 아이를 출산하는 무슬림에게 1970년대부터 떨어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유럽이 취한 인구복지정책은 “이슬람을 폭발적으로 격려한다”고 최 선교사는 진단했다.

고유문화 유지를 위한 출산율은 2.11명. 출산율이 1.3명으로 떨어지면 그 문화를 다시 회복하기까지 80~100년이 걸린다고 한다. 그렇다면 현재 평균 출산율이 1.38인 유럽의 문명사는 위기에 놓여 있는 셈이다.

최바울 선교사는 유럽의 지도자들이 고민하는 것도 그것이라고 전했다. 유럽의 문명사가 끝나느냐, 유럽이 이슬람화되느냐? 하는 이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들은 후자를 택했다.

젊은 층은 부족하고 노인 인구가 많아져 소수 젊은이가 다수 노

인을 먹여 살리는 구조가 되면 아프리카보다 더 후진 대륙이 되게 되고 그러면 소위 유럽의 문명사는 끝이 난다.

인구복지정책을 펼쳐도 아이를 낳지 않는 유럽인에게 돌아갈 혜택이 이민자 무슬림들에게 돌아가고, 그렇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무신론화된 유럽이 이슬람화된다는 걸 모르는 바 아니지만 그래도 유럽 지도자들은 “유럽의 문명사가 끝나는 것보다 유럽이 이슬람화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 정책을 펼친다”고 최 선교사는 말했다.

1960년대 대거 이민과 유럽에 동화하며 사는 것 같이 보였던 무슬림 이민자들이었지만 1990년대 들어와 어느 정도 세력이 형성되니 연대를 하며 국가 정책에 개입하고 이슬람을 비하하면 테러에 폭동을 일삼고 있다.

최바울 선교사는 “유럽인들이 3D 업종의 일을 시키고 있다고 생각했던 무슬림 이민자들이 갑자기 똑똑해진 건가? 아니다. 원래 그랬다. 유럽이 당한 것이다”고 말하며 “1960년대 몰려올 때 그걸 알고 대응했어야 했는데 모르니 순진하게 있다 끝났다. 기독교인은 저 교회가 하는 것에 동의했으나 안 했느냐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하지 집제로 행동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슬람은 집체 종교이다. 전혀 다른 개념으로 작동하는 종교라는 것을 이해하면 이들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니 이렇게 하겠구나 이런 일이 있겠구나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다”고 전했다.

“영국 공립학교 클래스에서 다른 영국인 학생들과 같은 모습으로 수업을 받던 전체 20명 중 4~5명의 무슬림 학생이 언젠가



인터콥 대표 최바울 선교사

부터 이슬람 전통 복장을 하고 오기 시작했다. 왜 이런 복장을 했느냐 하니 무슬림이라 입었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무슬림의 수가 더 늘어나 코란을 공부해야 하니 이슬람 선생을 허락해달라는 얘기가 나온다. 우리는 종교교육을 안 한다 하니 우리 이슬람은 해야 한다고 대응한다.

학교 측에서 선생이 없다 하니 우리에게 있다고 하며 데려온 이슬람 선생에게 정부가 돈을 지급한다. 그러다 무슬림이 20명이 되니 따로 반을 만들어달라 하고 나중에는 이슬람 학교를 세워달라고 한다.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지 정부가 물으면 우리도 시민이라는 대답이 돌아온다.”

최 선교사는 유럽에 이어 이제

는 미국, 캐나다 차례라고 말했다. 현재 미국의 인구는 3억여 명이며 무슬림 인구는 1000만 명으로 3%를 조금 웃돈다.

“미국도 무슬림 신자들이 집단 액션을 좀 있다 하기 시작할 것이다. 미국 대통령이 성경에 손을 얹고 기도했더니 그것 하지 말라는 요구가 벌써 나왔다. 미국이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인데 왜 성경에 손을 얹고 기도하느냐는 것이다.”

최 선교사는 “최근 미국의 어느 목회자가 코란을 불태운다고 했더니 외교부 장관에 오바마 대통령까지 그러지 말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그러나 이슬람권에서 여전히 성경은 불태워지고 있다”며 “세계의 룰을 누가 만드는가 보라. 이슬람이 룰을 만든다”고 덧붙였다.

정교일치의 종교이기에 한 나라에 이슬람 인구가 4~5%만 되면 국가를 장악하는 액션을 취한다는 이슬람, 조용한 이민자로 들어왔다 ‘연대’라는 강력한 에너지로 한 국가를 장악해내는 그들의 위협적인 도전 앞에 전 세계가 서 있다.

(오상아 기자)

“복음은 겨자씨 같지만...” 제50차 PCA 한인동남부 노회

로이 테이어 목사 “한인의 신실함과 선교 열정에 감사”

미국 장로회(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 이하 PCA) 한인동남부노회(노회장 조영팔 목사) 제50차 노회가 4일 오후 3시 제일장로교회(담임 서삼정 목사)에서 개회예배를 드리며 2박 3일 일정의 막이 올랐다.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열리는 제50차 PCA 노회에는 한인 동남부 노회 소속 교회들이 조지아, 알라바마, 테네시, 플로리다 등지에서 모여 들었다.

한인동남부한인노회 초대 노회장인 서삼정 목사(제일장로교회)는 오후 7시 30분 50차 기념 감사예배를 통해 ‘하나

님의 나라를 자란다’는 설교를 전했다. 서 목사는 “천국은 겨자씨가 심겨 자라나는 것과 같다. 복음은 적게 시작하지만 점점 커지고, 결국에는 큰 운동으로 자리잡아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한다”고 전하며 “우리가 심어야 할 씨앗은 복음이다. 윤리나 도덕, 철학을 심으면 교회에 세상의 씨앗이 자라게 된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심되 조금씩 하는 마음이나 점진적으로 도래하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한다. 이 지역에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꿈을 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3명 중 1명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현재 시대를 설명하면서, 마지막 기도에서 서 목사는 “제 100차 노회에는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해 주시도록”



4일 미국장로회(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 이하 PCA) 한인동남부노회(노회장 조영팔 목사) 제 50차 노회의 막이 올랐다

기도했다.

1973년 창립된 PCA 교단은 성경을 정확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과 행위의 최고 권위로 받아들인다는 고백을 드리며 보수 개혁신앙의 앞장서고자 그 첫 발을 내디뎠다. 현재는 6개 주 4500명이 가입된 교단으로 성장했다.

축사를 한 총회 서기 로이 테이어(Roy Taylor) 목사는 “1973년 교단의 창립 때 청년

으로 함께 했는데 어느새 백발이 성성한 노목회자가 되었다”고 서두를 때면서 “미국 교회는 60년 대 중반, 교회가 천국의 모형이 되어야 한다는 믿음 아래 소수민족 목회에 힘을 기울이기 시작했는데, 현재 미국 내 한인교회의 성장과 발전을 보며 놀라움을 감출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교단 내 가장 큰 교회가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한인교회이며, 영어권 장로

회의 개종율 보다 한인장로회의 개종율이 훨씬 높다” 등을 예로 들며 “한인 교인들의 신실함과 선교에 대한 성실성에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4일 감사예배에는 심수영 목사(아틀란타새교회)가 기도, 조영팔 목사(컬럼버스장로교회)가 성경봉독 및 사회를, 서삼정 목사(제일장로교회)가 설교, 신윤일 목사(실로암교회)가 선언문 낭독, 로이 테이어

목사(총회 서기)가 축사, 이재룡 목사(올랜도성기는장로교회)가 광고, 강준원 목사(열방선교회)가 축도를 했다.

노회 측은 “개혁주의 신앙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권위로 삼고 지난 25년간 진리의 수호와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달려왔다. 기념비적인 50회 노회를 맞아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앞으로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나아갈 것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6일까지 계속되는 노회는 5일 노회 속회, 각 시찰별 운동경기, 동남부 노회의 과거, 현재, 미래(서삼정 목사), 사모들과의 시간, 자유토론이 이뤄지며 6일 테이블토크, 폐회예배로 구성된다. 현재 PCA내 한인동남부 노회는 동부 시찰회(9개 교회), 중부 시찰회(14개 교회), 남서부시찰회(5개 교회), 남동부시찰회(4개 교회)로 나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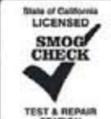
(권나라 기자)



- ✓ Smog Check
- ✓ Brake Service
- ✓ Tune-Ups
- ✓ Computer Diagnostc
- ✓ 전기계통
- ✓ 30/60/90K Service
- ✓ A/C Service

L.A. AUTO 정비





24hr 213.247.6657

※ 목회자 특별 할인해 드립니다.

엘에이오토정비 320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90006

INSURANCE & RENT CAR, 사고처리

Tel. 323-735-3180

Fax. 323-730-0112



Mon - Fri
A.M 7:00 ~ P.M 7:00

Sat - Sun
A.M 8:00 ~ P.M 6:00

SMOG CHECK
\$10 off

REPAIR
\$10 off

성찬으로 인종과 문화를 뛰어 넘어

에반스톤제일장로교회 연합예배

전세계 교회가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 그리스도의 한 몸된 교회임을 재확인하는 세계 성찬주일. 시카고 지역의 많은 한인교회들이 성찬식을 거행하며 떡과 포도주를 나누었다. 에반스톤의 유일한 한인교회인 에반스톤제일장로교회는 미국교회인 First Presbyterian Church of Evanston과 함께 연합예배를 드리며 성찬으로 인종과 문화의 벽까지 뛰어 넘었다.

식적으로 First Presbyterian Church of Evanston의 한어 회중이며 노스웨스턴대학교 캠퍼스에서 0.4마일 떨어진 곳에 한 교회 예배당을 공유하고 있다. 이민목회 중에도 쉽지 않다는 것이 학원목회인데 그동안 많은 목회자들이 이곳에서 목회하다 떠난 이후, 8년 전 권선중 목사가 부임해 왔다. First Presbyterian Church of Evanston은 현재의 한어회중을 특별한 동반자로 인식하고 한 교회의 멤버십을 가진 회중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미국교회를 섬기는 백인, 흑인, 라티노, 아시안 회중은 총 1500명에 달한다. 이 중 한인인 50명

이며 주일 오후 12시에 한국어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러나 이 두 회중이 연합예배를 드린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레이몬드 힐튼 담임목사와 권선중 목사가 각자의 언어로 말씀을 전했고 이는 한국어와 영어로 번역돼 주보에 기재됐다. 힐튼 목사는 "Mission Possible"이란 설교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을 교회를 세상에 보내어 선교하신다"면서 "이 막중한 사명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오늘 First Presbyterian

Church of Evanston의 미국교회와 한국교회의 성도로서 모였다. 예수님의 약속과 능력을 신뢰하며 순례자이자 선교사로서 서로 도움이 되는 삶을 살자"고 강조했다. 권 목사는 "Wishing to undo what others have done"이란 설교에서 "과거 기독교가 선교 역사상 저질렀던 과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서로를 나누거나 질시하거나 미워하지 말고 사랑으로 하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 힐튼 목사와 권 목사가 함께 분별과 분간 의식을 행했고 성찬 후에는 두 교회가 함께 신앙고백을 하며 예배를 마



10월 3일 세계성찬주일을 맞아 피부색과 언어, 문화의 차이를 뛰어 넘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성찬에 함께 했다.

쳤다. 권 목사는 "얼굴색과 언어가 다르지만 그리스도의 한 몸된 교회를 섬겨 하나된 예배를 드린 것이 감사하다"면서 "앞으로 두 회중이 하나될 수 있는 연합예배를 지속적으로 계획 중이다"라고 밝혔다. (김준형 기자)

◆ 시카고한인교회에서 GP선교의 밤 열려

GP의 40년, 국제화되는 Global Partners로



GP 선교사들과 이사를, 후원자들이 기도의 손을 맞잡고 GP의 발전과 전세계 모든 한국인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한국의 자생선교단체 Global Partners(GP선교회)가 명실상부한 Global Partners로의 모습을 갖춰 가고 있다. 전세계 30개국에 273명의 선교사를 파송해 복음을 전하고 있는 GP선교회(Global Partners)의 한국과 미주 지도자들, 30개 국가의 대표 선교사들이 위스콘신에서 9월 28일부터 10월 2일까지 국제지도력회의를 개최한 직후, 10월 4일 GP선교의 밤을 시카고한인교회에서 열고 국제화의 비전을 나눴다. 1968년 한국인 선교사들의 연합체로서 '국제선교협력기구'라는 이름으로 탄생한 이후, 한국 지구촌선교회, 해외협력선교회를 거쳐 GP에 이르기까지 40여

년을 오면서 GP는 이제 한국인 선교사들을 훈련, 파송하는 것 뿐 아니라 선교지의 현지인들을 훈련해 또 다른 선교지로 파송하며 현지인 목회자들이 이사로 들어오는 등 Global Partners라는 이름에 걸맞는 모습으로 발전해 가고 있다. 이번 GP선교의 밤은 시카고 지역 목회자와 평신도들에게 GP의 사역을 소개하고 후원과 기도 협력을 부탁하기 위해 열린 것이었다. GP가 선교하고 있는 전세계 다섯 권역의 대표 선교사 5명을 포함해 각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선교사 30명, 한국이사 3명, 미주이사 5명이 참석했으며 GP의 사역에 관심을 갖고 있는 목회자와 평

신도 40여명이 선교사들을 격려하고 함께 기도했다. 미주 대표 백운영 선교사는 "GP는 한국인 선교사만을 위한 단체가 아니라 타민족, 타인종들까지 훈련시키고 선교에 동원하는 밑거름이 되자는 비전을 갖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구식 선교 방식에 한계를 느낀 베트남, 브라질 등 타민족 교회들이 GP의 훈련 프로그램에 동참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또 그는 "특히 최근 한국이사회, 미주이사회에 이어 브라질이 사회가 조직됐으며 이사장에 브라질 현지 목회자가 선임되는 등 국제적인 모습을 갖춰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준형 기자)

연속적 영성 운동과 사회 참여가 특징

시카고 KUMC 총회 열고 명칭 논의 및 평신도 부회장 신설

지난 한 회기, 시카고 지역의 한인 연합감리교회들은 시카고 지역을 위한 회개 기도회, 6.25 기념 기도축제 등 다양한 기도 운동을 추진했으며 불우이웃돕기 달리기 대회로 나눔 실천에도 앞장선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개교회 별로 하던 신령직 훈련을 통합해 운영하며 효율성을 더한 것도 주목받았다. 10월 3일 시카고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에서 열린 시카고지역연합감리교회한인연합회 총회 회원들은 그동안의 사역을 보고했다. 영성 사역의 부분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것은 신년금식

연합성회, 치유와 회복을 위한 연합 기도회, 웨슬리선교부흥회, 민족의 치유와 사명회복을 위한 기도축제 등으로 이어진 연속적 사역이었다. 특히 시카고 지역의 교회 갈등 문제를 대하며 '교회 먼저 회개 하자'는 운동을 연합회 차원에서 시작한 것과 6.25를 기념해 한인 전체 동포 사회를 위한 기도회를 연 것도 특징적이었다. 연례적으로 개최해 온 연합부흥회는 개척교회 세 곳에서 돌아가며 개최하고 주변의 교회들이 함께 참석해 새신자 인도를 돕고 헌금은 그 교회에 헌금하는 식으로 개척교회를 지원하는 방식이었기에 더욱 이목이 집중됐다. 신령직 훈련은 그동안 각 교회 별로 진행되며 목회자들의 에너지가 중부투자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중앙감리교회에 모여 진

행했다. 장로 후보 4명, 권사 후보 19명이 훈련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실시한 불우이웃돕기 걷기 및 달리기 대회는 총 수입 10073불 가운데 행사 경비로 7206.42불이 지출돼 현재 잔고가 2866.58불이다. 회원들은 수익금이 예상보다 적다는 점에 아쉬움을 표했지만 첫 대회 치고는 그다지 나쁜 결과는 아니란 결론을 내렸다. 내년도 희망적이다. 선교전도부에서는 각 교회 성도들 가운데 학술, 의료, 교육 전문가들을 동원해 한인 커뮤니티를 섬기는 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부장 백영민 목사는 "한인교회가 이미 커뮤니티를 섬길 리소스를 내부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상태다. 이것을 잘 동원하기만 하면 지역사회를 섬길 수 있는 좋은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고 보고했다. 시카고지역연합감리교회한인연합회는 특별히 부회장을 1명 임명하는 현 규칙을 부회장 2명 임명으로 변경했다. 부회장 중 1명은 목회자, 1명은 평신도로 해 목회자와 평신도의 비율을 맞추기로 했다. (김준형 기자)



시카고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에서 시카고지역연합감리교회한인연합회 총회가 열렸다. 공식 등록한 인원은 총44명으로 집계됐다.

Sales • Rental • Service • Free Estimate • Supplies

복사기 무료

칼라카피

10
최저 1장

**복사기 판매
렌탈 서비스**

FMB RENT PROGRAM

- SERVICE는 물론 TONER, DRUM ROLLER등 모든 PART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정기적으로 SERVICE를 실시합니다.
- 4시간내 A/S를 신속 처리

최신식 디지털
COLOR
COPY MACHINE

칼라카피어 렌트전문!

FMB

First Business Machines, Inc

전화문의 (800)582-3321 / (562)802-9044

Fax : (562)802-8094 www.fbmcopiers.com
13245 E. Rosecrans Ave., Santa Fe Springs CA 90670

민중기 칼럼



민중기 목사
충현선교회

열왕기하 13장을 보면, 엘리사와 같이 걸출한 선지자도 죽을병에 들었습니다.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상태가 되자 당시의 왕 요아스가 찾

아가 엘리사 선지자를 만났습니다. 요아스는 자신의 멘토인 엘리사가 죽게 되자 눈물을 흘리면서 외쳤습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오래전 스승 엘리야의 승천이 임박한 것을 안 엘리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스승을 따라 다닌 일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고 따르는 이 왕 요아스를 축복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에게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왕이시여 활과 화살들을 준비하십시오”. 그 후 엘리사는 활을 쏘아 왕의 손에 안수하고 동쪽 창을 열고 활을 쏘라고 시킵니다.

“왕이 활을 쏘신 것은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의 화살입니다. 왕이 아람 사람을 멸하도록 아백에서 치실 것입니다.” 다시 엘리사는 왕에게 화살로 땅을 치라고 말합니다. 이스

엘 왕이 3번을 치고 그치자 엘리사는 활을 내면서 5-6번을 쏘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였을 것이며, 이제는 왕이 아람을 세 번 쳐서 이길 것이라고 말합니다.

왕을 향한 엘리사 선지자의 마지막 선물은 말씀, 곧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은 항상 경쟁적인 대적으로 존재했

던 아람을 이기고 잃어버린 영토를 다시 얻게 된다는 예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아람을 잠시 동안 극복하여 이기게 할 것을 선지자를 통하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왕에게 시

킨 예언적 성취를 포함한 행위는 이해하기 힘든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왕의 팔에 안수하고 그것으로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결정을 전하는 예언자의 상징적 행위는 영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첫째로, 미래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창문을 열고 화살을

날리라’는 말은 이미 하나님이 아백의 아람 사람을 징계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정하여진 것이므로 다른 가능성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하

땅을 친 왕 요아스에게 화를 내는 것은 왕의 의지적 행위에 따라 아람의 미래가 결판이 나기 때문에 아쉬워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역사의 전개에 있어서 지도자는 중요한 특성을 가집니다.

지도자가 두드리는 횡수에 마치 이스라엘의 미래가 결정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의 손의 움직임이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지도자의 선택과 결단이 백성의 미래와 운명을 결정하기에 지도자는 자신의 임무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소중한 책무를 성실하게 감당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인간의 의지

닥터 살롬 칼럼



살롬 김 박사
美 웨퍼드대학교

크로스 코드 <2>

지난 주에는 서원 차원에서 교회 밖의 불(佛)자와 교회 안의 불(不)신자에게 성경을 어떻게 소개해야 좋을 지에 대하여 살폈다. 결론은 그들이 성경을 암호로 보아야, 이해되지 않는 내용에 대하여도 겸손과 인내를 가지고 진리를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오 늘은 본격적으로 성경이 암호인 이유를 살피고, 어떻게 암호화가 되었는지를 살펴보자.

- 일반 암호의 정의

먼저 암호의 정의가 무엇일까? 암호란 전달하여야 할 정보(plaintext)를 비밀스러운 방식으로 암호화(code, encryption)하여 일반 사람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게 함으로 정보를 보호

하고, 해독(decode, decryption) 과정을 통하여 정보를 전달하는 의사소통의 한 방식을 의미한다. 이러한 암호의 정의를 기억하면서 성경의 암호화를 가장 확실하게 확인하는 방법은 암호화한 본인에게 확인하는 것이다. 그분은 최고 권위 예수님이시다.

- 예수님의 암호화 방식

성경은 다양한 암호화의 방법을 사용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비유를 통한 방법이었다. 그 이유가 궁금할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되었나니 ...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를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마태복음 13:10-13, 마가복음 4:11).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 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마태복음 13:34-35, 누가복음 8:9-10).

이 말씀들은 암호화를 이해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 암호에 대한 예수님의 정의

적에게는 비밀스럽게 숨기려

는 것, 아군에게는 비밀스럽게 드러내려는 것이 암호의 특성이다. 이렇게 볼 때 예수님의 암호는 일반 불신자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또한 암호는 제자들에게는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성경의 암호화는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는” (마가복음 4:22) 차원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성경을 통하여 이 비밀을 알기를 원

하신다.

예를 들어 예수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뜻이고, 그를 믿고 따르는 이들은 구원을 실제로 받게 되어 있다. 그러나 아직 예수님이 누구이고, 무엇을 해주실 수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라는 말은 아무리 들어도 그 깊은 뜻을 알지 못하는 암호가 된다.

- 숨겨져야 할 비밀, 지켜져야 할 천국

그런데 왜 성경은 모든 것을 쉽게 설명치 않고 암호화한 것일까? 역시 예수님의 설명을 들어보자.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신다 (마가복음 4:12). 즉,

성경이 모든 것을 쉽게 설명하지 않는 이유는 눈이 있어 보기는 하지만, 귀가 있어 듣기는 하지만, 그 뜻이 무엇인지 모름으로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이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감추시는 것에 대하여 매우 의아하게 생각이 될 것이다. “좋은 하나님께서 왜 천국의 비밀을 감추신단 말인가”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이유가 있다. 성경은 천국의 비밀이 기록 된, 천

국에 가는 비밀이 기록 된 우주 최고의 비밀 문서이다. 그 정보는 최고의 기밀사항이다. 그것은 비밀스럽게 지켜져야만 했다. 왜냐하면 천국에 양의 탈을 쓴 염소가 들어간다면 그 곳은 양의 천국이 아니라 염소의 천국이 되기 때문이다. 아직 양으로 존재가 변화되지 않은 염소들에게 천국의 비밀은 암호화되어 있는 것이다.

생각하고, 가장 잘 믿었고, 나를 신학을 했다고 생각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정확하게 해당되는 말이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사람들의 손에 넘기운 후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여러 차례 말씀하신다.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한다는 말씀을 이해할 수 없으므로 용납할 수가 없었고, 그런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마가복음 8:32-33) 고 말씀하실 정도였다. 더구나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에서 우리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뵈옵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었다 (마태복음 28:17)는 사실을 접한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

활은 여러 차례 설명을 듣고, 눈으로 보았지만 여전히 어려운 암호가 되었다. 예수님을 3년 반이나 따라다닌 그들도 그렇게 혼돈스러운데, 2000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불신자들이야 오죽하겠는가?

그렇다면 어떻게 제자들이 모를 수 있었을까?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설명한다. “이는 저희로 깨닫지 못하게 숨김이 되었”기 때문이었다 (누가복음 9:45). 말씀의 뜻이 숨겨졌다는 것으로 들어도 뜻을 알지 못하도록 암호화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는 한 번이 아니었다. 암호화는 뻔히 보는데, 그리고 듣는데 그 뜻을 알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때가 되면 주님은 주님의 방법으로 그 암호를 알게 하신다.

- 성경적 암호의 정의

지금까지 살펴본 성경의 암호 개념을 일반 암호의 정의에 대입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성경의 암호화는 전달하여야 할 천국과 구원의 비밀을 비유와 기타 방식으로 암호화하여, 불신자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지만, 암호 해독을 통하여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제자들이 알고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상에서 왜 성경이 암호화를 선택하고, 어떤 방법으로 암호화를 하는지 살폈다. 다음부터는 암호 해독 방법에 대하여 살펴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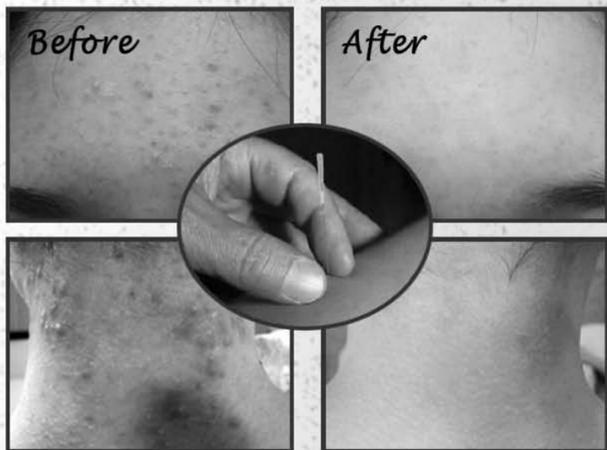
예수님의 암호 정의와 암호화 방식

여드름 고민 해결!

첫 상담 무료! 효과가 없을 경우 100% 환불 보장제 실시

재발하지 않는 근본 치료법
침 + 해독 + Becare

몸 속의 원인을 다스리고, 피부의 내면과 외면을 동시에 치료합니다. BeCare요법은 피부 내면 치료를 통해 면역 체계를 작동하게 하여, 비정상세포(여드름)를 정상세포로 바꿔주는 치료법입니다. 그동안 Becare치료를 받으신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 여드름 재발없이 깨끗한 피부로 생활하고 계십니다.



경산한외과병원

원장 류재규 경산 한외과 대학 교수

T.213-380-0853

3030 W. Olympic Blvd., Suite 202-203, Los Angeles, CA 9006 (삼호관광 몰 2층)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0404

Classified Add



중고차 황제 김기형

웨밀리 자동차 FAMILY AUTO SALES

새차 리스, 중고차 최고가 매입

HONDA, TOYOTA, LEXUS, BMW, MBZ
(하이급차, 고급차, 유렵차, 일제차)

213-453-5900 / 714-329-3535
123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5

20년 LA에서 가장 오랜 전통! 정육점의 원조 본점!

초이스 11가 정육점

USDA 프리미엄과 초이스 생고기만 판매
양념 LA 갈비 / 교회, 단체 특별가!

블랙앵거스 프리미엄 갈비살, 갈비, 꽃살
차돌배기, 유기농 흑돼지 삼겹살 등...

< 자신있게 권해 드립니다! >

1134 S Western Ave #A5 Los Angeles CA 90006 (웨스턴 + 11가 12가 사이)

웨스턴 11가점 Tel (323) 733-4677

Boston Hub Dental & Implant Center 보스턴 덴탈 & 임플란트 센터

10년 임플란트 시범 경험 전문 치과외과와 보철 전문의사가 최상의 임플란트 시술 및 보철물 제작임플란트 성공은 적절한 임플란트 선택과 치주 치과 및 보철물 제작에 달려 있습니다.

무통 임플란트 | 잇몸 없게 하는 임플란트 | *악기 복원술 보철 전문의 | *악기 최첨단 임플란트 전문의

PRP & PRF 시술 (임플란트 주위 골 생성 촉진)
오픈기념 특별할인 임플란트 \$999 (limited 보철포함)
검진 + X-Ray + 클리닉 = \$40

치과 외과 • 보철외과 • 신경치과 • 구강외과 | 보철외과: PPO, HMOA
치주치과 • TMJ (턱관절장애, 스물린턱) | TEL. 714, 638, 4042 / 714, 638, 2141 (한국어)
보톡스 (주름, 근육에 의한 사각턱) • 치아교정 | 13031 Kerry St., Garden Grove, CA 92844

Pacific General Insurance Agency, INC. 태평양 종합보험 (주)

비싼 보험료 때문에 아직도 고민하세요?

저희 회사는 여러분의 사업체와 개인보험 위험을 없앨수는 없지만
보험료 비용은 낮출 수 있습니다. (LIC# 0G17850)

상업보험전문 / 중대위험보험 / 개인보험 / 생명보험 / 건강보험
호텔, 그로서리, 세탁소, 상가건물, 아파트, 식품마켓, 교회보험, 각종비즈니스, 상업차량, Surety Bonds

☎ 323-378-6213 - Toll Free: 877-393-2311
451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동양선교교회 앞)

치과 기공 기술 학생모집

(면허 소지한 원장이 직접 지도합니다)

10월 29일, 12월 19일 시험대비 CDP 치과기공 면허 응시생 모집
CDT 치과기공 면허 준비반

- 4-6개월, 1년 과정, 기초부터 철저 지도, 현장실습, 취업알선
- 가톨릭기속성 학생모집 (웍스, 포셀린, 메탈 모델)
- 전 치과 기공 대학 학장, 현 면허 시험 강사 특별 지도
- 각종 장학금 혜택 목사님 추천서 10%DC

제퍼슨 치과 기공 대학 (213) 384-3006
2140 W. Olympic Bl. #310 (월서은행 3층)

초기 이민자, 재취업 기술교육

LA캐더링

주말 점심메뉴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Church Set (교회음식) Menu D를 보십시오.
편리한 예약 상담/ 신속한 견적 서비스
www.lacatering.com

- 키레라이스 \$1.00 (1인당)
- 짜장소스 \$1.00 (1인당)
- 유채콩나물국 \$1.00 (1인당)
- 김자미역국 \$1.00 (1인당)
- 야채비빔밥 \$1.20 (1인당)
- 고기비빔밥 \$1.80 (1인당)
- 육개장 \$1.5 (1인당)

1-800-530-5660 / 1-800-711-0776

식재료 도.소매

- 주일 예찬 식재료 (양념, 젓갈, 김, 김치 각종 장류, 밀반찬)
- 교회 바자회 물품 (음료, 스낵, 견과류, 각종 공산품 등)
- 각종 Tea (커피, 동글레, 홍차, 녹차 등)

☎ 818-306-7652

조립식 각종 선반 전문



중고 선반 대량 보유
99센트 마켓 선반,
창고 선반 수량 불문
현할 매입
조립식 선반을
전문으로 취급하여
달리움을 보유한 선반
전문 회사입니다.

(323) 855-5687 / (213) 200-3050
646 S. San Pedro St. LA CA 90014 (산페드로 St, 6가 7가사이)

블라인드 카텐 전문 업체

CITI BLINDS

Toll Free (888) 383-2209
Direct (909) 821-9329
Fax (626) 443-3100

HunterDouglas
windows fashions
Priority Dealer

MR 박을 찾아가주세요!

Home depot 보다

싼 가격 보장

공장 직판 wood shutter
각종 Remote Control
BLINDS 제작전문

655 Berry St. #F
Brea, CA 92821
citiblinds@gmail.com

Natural Hot Spring!

엘시노 천연유황온천

LA에서 제일 가까운 온천장!

1. 교회 단체를 위한 예배실(컨퍼런스 룸)
2. 가라오케, 바베큐 시설 완비
3. 가족단위 위한 객실에 온천탕 구비
4. 주변에 호수, 골프코스, 아울렛, 와이너리

Elsinore Hot Spring Resort
(951) 674-2581/9997
316 N. Main St Lake Elsinore, CA 92530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삼성통운 SAMSUNG EXPRESS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한국인 직원이 한국식 포장이사를 해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전화 877-580-2424, 323-582-2424
www.easy2424.com 8122 Male Ave, #1, Los Angeles, CA 90001

3개월 단기 과정으로

유아교사 자격취득

유아교사, 원장 Certificate Program

- 3개월 집중 과정으로 유아교육 현장 실습을 포함하는 전문 교육을 받게 됩니다.
- 졸업 후 Preschool, Day Care Center, Family Child Care에 취업 및 유아 교육기관 설립을 안내해 드립니다.

TEL. 714-932-9728
12666 Brookhurst St, Garden Grove, CA 92840

스탠튼대학교

'아토피, 비염, 천식' 한방으로 해결합니다.



편강환

- ▶ 300여개국 해외진출
- ▶ 7만명 이상의 환자 진료

스탠튼대학 (부속) 편강환방병원
9618 Garden Grove Blvd., #221 Garden Grove, CA 92844
Tel. 714-539-6562 Fax. 714-539-9077

CHOI AUTO

30년 경력, 정직, 성실로 봉사하겠습니다.

323)732-3836
Cell. 213-344-8098

1409 S. Western Ave. L. A., CA 90006 (Western + 15th)

이중창문교체전문

특별세일 7월

10개 기본창문 (햇빛차단 Low-E)
\$2,699+Tax

창문 10개 이상 Order시 블라인드 가격 10% 할인

창문 인테리어의 모든것 - VIVA BLIND

비바블라인드

상업용 ROLL SHADE 자체 전문 제작

- 커튼-맞춤전문(Custom Made)
- 블라인드 - Bass Wood, Faux Wood
- Bass Wood Shutters 전문
- 마루바닥 - 원목, 인조마루 취급전문
- 온돌마루

TEL. (213)-389-0070
1411 W. 8th Street, Los Angeles, CA 90017

철공 콘크리트

펜스/자동모터, 방범창, 계단, 철문, 자바라, 주차장 라인, 콘크리트, 아스팔트, 벽돌 담장

213-327-9929 213-909-5518

조경공사 랜드스캐핑

연못, 징검다리, 분수, 폭포, 정원 인조석, 자연석

K.KOH 루핑 Lic. #717364

모든 종류의 지붕
상업용 주택 아파트
• Roof Maintenance • Roof Certification • Roof Cleaning
• Partial Roof Repair • Balcony & Walk way deck • Waterproofing

지붕 박사 윤박사가 잘 훈련된 직원들과 함께 최상의 Service를 약속 드립니다.
* 무료견적 • 보험가입업체
(714)200-7552 (213)663-2306

한국방송+미국방송 동시 시청



지금 신청하세요!
1-800-489-8775

결혼꽃 전문 꽃에 관한 모든 것을 책임집니다.

기니꽃집

36년 경력

- 결혼꽃 (Wedding)
- 생일 꽃다발 (Bouquet)
- 장례꽃 (Funeral)
- 각종 개업용 화환 및 화분 (Plants)
- 교회꽃 (Church)
- 파티꽃 / 풍성장식 (Parties / Balloon Decoration)

T. 213-385-3377, Fax 213-383-2137 / 2500 Wilshire Blvd. #103A, L.A., CA 90057

이민목회에 생명력과 부흥의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생명나무목회 컨퍼런스

미국 이민 목회자들을 위한

생명나무목회 컨퍼런스 2010

맨땅에서 맨발 맨손으로 현 3만명의 교회로 부흥을 일으킨 생명나무목회 비전을 들어 보셨습니까?
남가주교협 창립40주년을 맞이하여 한기총언론출판위원회와 남가주교회협의회가
한국에서 부흥과 성장의 모델이 되고 있는 새에덴교회 소강석 목사의 생명나무목회의 비밀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미 지난 2009년 한국에서 3,000여명의 목회자들이 참석하여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던 그 귀한 컨퍼런스에 목회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생명나무 목회컨퍼런스는

하나, 특히 이민교회에 반드시 필요한 내용입니다.

하나, 개척교회 중형교회 대형교회 모든 교회에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 교회의 기존 조직이나 틀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회에 생명력과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하나, 목회자와 교회의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신간도서 5권씩 증정함)

▪ 일시 : 2010. 10. 25(월) ~ 27(수)

▪ 장소 : 더블트리 호텔 (전 매리오투 호텔)

www.losangelesnorwalk.doubletree.com
(13111 Sycamore Dr. Norwalk, CA 90650 - 5번 프리웨이와 San Antonio 교차지점)
(562) 863-5555 / (562)714-3330 (미셸 신 한인담당 매니저)



주강사 소강석 목사

새에덴교회담임목사
칼빈대 석좌교수
세계성령운동중앙협의회 대표회장

개회예배



지용덕 목사

미주양곡교회 담임목사
남가주교회협의회 대표회장

폐회예배



이광선 목사

신일교회 담임목사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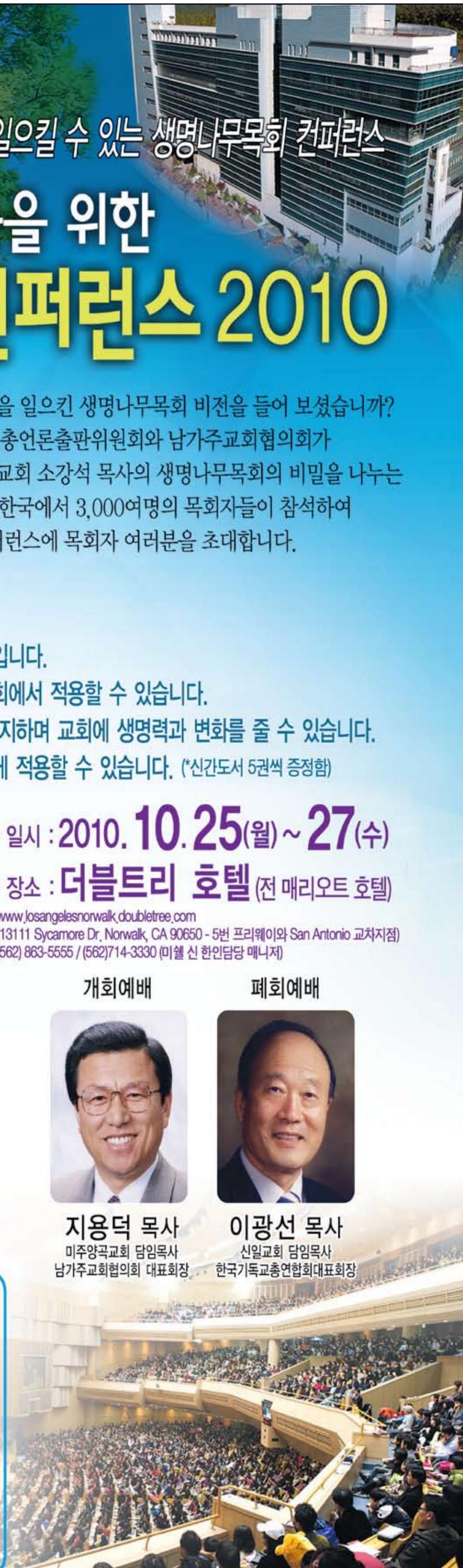
2010 컨퍼런스 주요일정

- 대 상 : 목회자
- 등 록 비 : \$50(교재 및 1급호텔 숙박 제공)
- 등 록기간 : 2010년 10월 3일~16일
- 등 록신청 : 홈페이지에서 참가신청서를 다운받아 메일이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접수
(우편접수는 마감일 소인까지 인정)

대표전화 : 213-383-2345(오전10시~오후 5시)
팩 스 : 213-383-2322(24시간 접수)
홈페이지 : www.cnewsweek.com
이 메 일 : christiannewsweek@hotmail.com
주 소 : 3700 Wilshire Blvd., suite 755 Los Angeles, CA 90010

*수용가능인원이 제한된 관계로 조기에 마감 될 수 있습니다.

▪ 주최 : 한국기독교총연합회(회장 : 이광선 목사, 언론출판위원회 회장 : 이형규 장로), 남가주교회협회(회장 : 지용덕 목사), 새에덴교회(담임 : 소강석 목사)
▪ 주관 : 크리스천뉴스위크(발행인 : 조명환 목사) ▪ 후원 : 세계기독교언론협회(회장 : 조명환 목사), 남가주목사협의회(회장 : 이정현 목사), OC교회 협의회(회장 : 박용덕 목사)



< 2010 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in America

TEL : 562-926-1023, 4691 | FAX : 562-926-1025
15605 Carmeni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코헨대학교 & 신학대학원
Cohen University & Theological Seminary

TEL : 310-793-2285
17002 S.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USA



국제개혁대학교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

TEL : (213) 381-0081, FAX : (213) 381-001
125 S.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캘리포니아센트럴대학교
California Central University

TEL : 213-381-7007, 213-248-0170
520 S. La Fayette Park Pl. Ste. #103, LA., CA 90057

국제기독교교육대학
International Education College

유아교육대학 개강 2010년 10월 11일
(2주마다 입학 가능) www.icecusa.com
TEL. 213-368-0316 / FAX. 213-368-0318
3807 Wilshire Blvd #730 Los Angeles CA 90010
(월서 + 웨스턴)

국제장로회연합신학대학
United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TEL : 714-879-7952 / FAX : 714-879-7952
1749 W. Orange Ave, Anaheim, CA 92804



세계기독교대학교
World Christian University

본교 대학부는 전액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수시입학 가능) ABHE 승인

TEL : (323)734-0227
2716 Ellendale PL. Los Angeles, CA.90007



캘리포니아 라노대학교
California university llano

T: 714-490-0065 F: 714-333-4990
520N. Brookhurst St.Ste.120 Anaheim CA92801
www.californiauniversityllano.org

피드몬트대학교
Piedmont University

TEL : 323-777-5269
10900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44

다니엘신학대학원
Daniel Theological Seminary

<장학금을 지급함>

TEL : 213-381-9490, FAX : 213-385-9191
2911 W.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57

미주대한신학대학
DAE HAN Theological Seminary U.S.A

TEL : 213-440-0125
1325 12th Ave. LA CA 90019

칼빈성서신학대학원
Calvin Bible College & Seminary

TEL : 213-389-8987
4055 Wilshire Blvd. 6419 LA., CA 90010



미주개혁신학대학교
I-20 발급

2966 Wilshire Blvd. 2nd Floor, Los Angeles, CA 90010
Tel #: 213-736-6500 / Fax #: 213-736-6504

아메리칸신학대학및대학원
American Theological Seminary

ARPC 미국 총회 목사 안수 I-20 발행

TEL : (323) 733-7565 , (818)535-9036
1829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http://www.atsusa.org



미션신학대학교
Mission Christian University

하나님 앞에 선하고, 진실하게 일할 수 있는 사명자를 양성합니다. (전액 장학금 지급)

TEL : (562) 869-7497 www.mcuniversity.org
15000 Studebaker Rd. Norwalk, CA 90650

로컬, 장거리, 국제전화까지 아이토크비비 하나로!

집에서는 아이토크비비!

밖에서는 아이토크글로벌!

한국가족들은 마이 코리아 넘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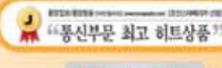
무제한 통화의 자유를 누리세요~

Global Unlimited Plan
글로벌 플랜 \$9.99/월, Tax포함
(*첫 3개월간, 이후 \$24.99/월)

- 로컬, 미국 · 캐나다 장거리, 한국 포함 27개국 국제전화 무제한!

지금 가입하시면,

- ✓ 마이 코리아 넘버 무료!
- ✓ 아이토크글로벌 무료!
- ✓ 개통비(\$29.99) 면제!

30일 환불보장 

44통신부문 최고 히트상품**

Verizon AT&T
가정용전화
완전대체

아이토크비비 사업자 모집
한인출입이 많은 매장을 보유하신 분 또는 활동적인 분을 사업자로 모집합니다.
상담문의: 213-784-1133
(동부시간 오후 1시~오후9시)

비상 집전화 기본료 이제 안녕~

Residential Economic Plan
패밀리 알뜰 플랜
\$4.99/월

- 미국 전화번호 1개+한국 전화번호 1개 제공!
- 수신 무제한 무료!
- 초저가 요금으로 로컬, 장거리, 국제전화 이용가능!
미국, 캐나다 2센트/분, 한국 음성전화 2.6센트/분

지금 가입하시면,
✓ 마이 코리아 넘버 무료!

My Korea Number
마이 코리아 넘버
한국에서 국내통화하듯 부담없이 미국으로 전화!

iTalkGlobal
아이토크글로벌
외출시에도 휴대전화로 편리하고 자유롭게 국제전화!

기업문의 1-800-872-2902 (고객지원) 1-800-875-8318 (고객지원)

www.Korea.iTalkBB.com

이제 한때 기업에 한해만 사용할 수 있는 30일 환불보장 제도를 통해 고객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광고는 2010년 10월 8일 기준이며, 세부 내용은 1-800-872-2902로 문의하십시오. **2010년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의 실적입니다. 출처: Nielsen. © 2010 Verizon Wireless. All rights reserved. *본 광고는 2010년 10월 8일 기준이며, 세부 내용은 1-800-872-2902로 문의하십시오.

PH Puente Hills Hyundai

...HYUNDAI **HAS IT**

북미에서 단일 딜러로 가장 큰 푸엔테힐스 현대에서 에쿠스 출시를 기념하여 기존 제네시스 리스하신 분들께 혜택을 드립니다. 제네시스 리스 리턴시 내셔야 하는 **DISPOSITION FEE(\$400)** 을 면제해 드리고, 재 리스시 **한달 할부금을 면제해** 드립니다.

목회자 특별리스 및 원가 세일

현재 목회하고 계신 목사님들께 크레딧이 나쁘시거나, 없으셔도 특별 리스해 드립니다.
(단, 2010년 NEW 엘란트라와 2010 pre-owned 소나타 제한)

• 구입을 원하실 경우 전차종 원가 대우해 드립니다. •

10월 스페셜 세일

2011 최신형 쏘나타

\$199/3YR 12K T.D.O \$2,399
O.A.C & PLUS TAX, LOYALTY INCENTIVE
STK 132410



2011 신형 제네시스

\$399/3YR 2K T.D.O \$2,999
O.A.C & PLUS TAX, LOYALTY OR COMP. INCENTIVE / STK 115602



2011 신형 제네시스 COUPE M/T

\$259/3YR 12K T.D.O \$2,699
O.A.C & PLUS TAX, COMP, INCENTIVE
STK 031622



2010 신형 엘란트라

\$159/2YR 12K T.D.O \$1,999
O.A.C & PLUS TAX, INCENTIVE
STK 093904



9월 중고차 매니저 스페셜

(이외에도 사고 없는 딜러가 보장하는 많은 중고차 보유하고 있습니다.)

매니저 원가 공개 세일



2007 HUMMER (YELLOW)
H3 STK P126552 \$24,888



2007 BMW (WHITE)
328i STK PZ70863 \$22,888



2007 BMW (BLACK)
328Xi STK PP31167 \$26,888



2008 HYUNDAI (GOLD)
ENTOURAGE STK P051414 \$18,488



2009 TOYOTA (WHITE)
TACOMA STK P640770 \$16,999

- 매니저가 원하는 중고차 세일 -

- ▶ 2007 HYUNDAI AZERA GRAY STK P185167 \$17,888
- ▶ 2008 HYUNDAI AZERA BLACK STK P332058 \$20,888
- ▶ 2009 HYUNDAI GENESIS 3.8 GRAY STK P046436 \$29,888
- ▶ 2009 HYUNDAI GENESIS 3.8 SILVER STK P019812 \$28,888
- ▶ 2009 HYUNDAI GENESIS 3.8 WHITE STK P048693 \$34,888
- ▶ 2010 HYUNDAI SANTA FE GRAY STK P337186 \$21,888
- ▶ 2009 HYUNDAI SONATA BLACK STK P440119 \$13,888
- ▶ 2010 HYUNDAI SONATA BEIGE STK P581165 \$15,888
- ▶ 2010 HYUNDAI SONATA WHITE STK P597224 \$14,888
- ▶ 2008 HYUNDAI VERACRUZ WHITE STK P057661 \$22,888

FREE CAR WASH EVERY SATURDAY 9AM-NOON

\$19.99 Oil Change and Car Wash
For All Hyundai Owners + 27 Point Inspection. First time customers only. Available any day. Call for an appointment. Present coupon at time of write-up.

세일즈 시간 월~토요일 9:00am~9:00pm
일요일 10:00am~8:00pm
서비스 시간 월~토요일 7:30am~6:00pm
일요일 8:00am~2:00pm

"서비스는 친절한 한인담당 Mr. 박을 찾아주세요"



* 한인타운에서 20분 거리 & 오렌지카운티에서 20분 거리



찰리 정



스티브 장



앤디 김



제메인 존슨



지니 안

PH 푸엔테힐스 현대 T. 888-212-6431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 WWW.PHHYUNDAI.COM

CARFAX
VEHICLE HISTORY REPORTS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HYUNDAI Assurance
Right now, finance or lease any new Hyundai, and if in the next year you lease your Hyundai, we'll give you \$1,000. See dealer for details.